

POLICY
iSSUE
REPORT

전라남도 은둔형 청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전라남도 은둔형 청년·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진

김도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승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 지원은 왜 필요한가	
	1.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과 사회문제	04
	2. 은둔형 외톨이 정책 지원의 필요성	05
II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및 현황	
	1. 용어의 정의	07
	2.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유형	14
	3.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22
III	사례 분석: 실태조사 및 지원시책	
	1. 국내 사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20)	26
	2. 국외 사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시책 및 실태조사	35
IV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 방안의 모색	
	1.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	44
	2. 은둔형 청·장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47
	참고문헌	55
부록	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57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설문 체계	60
	3.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설문지(청년재단, 2020)	68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수행 설문조사지	81
	5.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설문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85
	6.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설문지(백형태 등, 2011)	87
	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89
	8.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청소년위원회, 2005)	99
	9. 히키코모리 초기 평가 질문지	115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 지원은 왜 필요한가

1. 은둔형 외톨이의 출현과 사회문제

은둔형 외톨이의 등장

-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실업률의 증가 등과 함께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출현하기 시작
 -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출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기
 -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급률을 보이면서, 환경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더욱 증가
- 2000년대 초반에 들면서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 이시형(2001)의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청소년과 청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힘(김혜원 등, 2021: 18에서 재인용)
 - * 은둔형 외톨이의 절반 이상이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고, 이들의 문제점으로는 우울 증상, 대인공포, 자기혐오, 퇴행, 공격 성향 등이 두드러지는 것이라 설명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2005년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그 실태가 방영되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

- 영상을 통해 충격적인 실태를 확인하며,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상황이 심각함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는, 고독사 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 사회에 숨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 변화가 쉽지 않음

2. 은둔형 외톨이 정책 지원의 필요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청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인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애정 및 지지,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는 학교, 가정 등과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위험군을 찾아서 조기에 개입해 이들이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및 상담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 위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에 지자체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은 정책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10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몇 개의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2021년 12월 31일 현재 10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 * ①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 제정)
-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0.10.29. 제정)
- ③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3.24. 제정)
- ④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 ⑤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7.14. 제정)
- 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9.30. 제정)
- ⑦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9.30. 제정)
- ⑧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11.4. 제정)
- ⑨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0. 제정)
-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1. 제정)

- 전라남도에서도 2021년 9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조례의 목적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음

II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및 현황

1. 용어의 정의

일본의 히키코모리

-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이토 다마키(2002)는 ‘(자택에 틀어박혀) 사회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신장애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로 정의(김혜원 등, 2021: 23에서 재인용)
 - 가장 널리 인용되는 개념 중 하나로, 히키코모리는 병명이나 진단명이 아니며 등교 거부나 가정 폭력과 같이 하나의 상태임을 강조
 - * 개념 정의에서 언급된 사회참여는 취학이나 취업 상태, 가족 외에 친밀한 대인관계가 있는 상태를 의미
 - 용어의 정의에서 ‘자택에 틀어박혀’를 괄호 안에 넣은 것은 사회적 은둔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설명
 - * 가령 혼자 편의점이나 비디오 대여점 또는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등 비교적 활동적인 경우도 나타나, 이들은 사회적 은둔형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취학, 취업, 가족 외 친밀한 대인관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회 참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
 - *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누구와도 깊은 관계가 없는 히키코모리다’라는 표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
- 2010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일본어 발음 그대로인 ‘히키코모리(hikikomori)’가 새로운 단어로 등재

- 히키코모리에 대해 ‘주로 젊은 남성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탈피해 소외되고 있으며 흔히 자신들 집에만 칩거하는 일본의 현상’으로 정의

* Hikikomori is a Japanese phenomenon in which a young person, usually male, withdraws entirely from society, isolating and often confining themselves to their home(Oxford Dictionary of English—the 3rd edition, 2010; 김광희, 2020: 472에서 재인용)

- 일본의 후생노동성(2010: 6)이 발표한 <히키코모리 평가·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적 참가(의무 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에 걸쳐 대체로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형태로 외출할 수도 있음)를 가리키는 현상의 개념’으로 정의
 -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또는 음성 증상에 의한 히키코모리 상태와 구별된 비정신적병성 현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확정 진단받기 전의 조현병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에 유의해야 함’을 부연하여 언급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있는 건강용어사전 e-헬스넷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장기간 자택 등에서 나가지 않고, 자택 외에 생활 공간이 없는 상태. 특정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후자는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오오쿠사 미노루, 2020a)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여인중(2005)은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안 하는 사람’으로 정의 (김혜원 등, 2021: 24에서 재인용)
- 청소년위원회(2005: 14)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
 - ①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 ② 진학·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 ③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 ④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 ⑤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으로 규정
- 오상빈(2019b: 11; 2020: 23-24)은 은둔형 외톨이를 ‘희망을 찾는 사람’으로도 표현하면서, 이들에 대해 ‘은둔한 상태에서 누구와 소통을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
 - ① 3개월 이상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가족 및 친구 등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
 - *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3개월이면 고립 생활이 시작되어 굳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
 - ② 학업이나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학업과 사회참여에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
 - *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직업교육을 받지 않으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음
 - * 즉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거나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하면서 회피
 - ③ 친구가 한 명이거나 한 명(도움이나 정서적 교류를 요청할 사람)도 없음
 - * 친구를 사귀고 싶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 성향과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자신을 인정하거나 교류를 하더라도 스스로 고립되어 만났던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도 관계적 단절 상태에 이르기도 함
 - ④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함
 - * 방이나 집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모두 고립 생활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⑤ 자신의 고립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호소
 - * 이러한 감정이 주변의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침

⑥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장애라는 원인으로 고립 생활하는 경우는 제외

*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진단을 받는 상황은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

- 청년재단(2020: 4)은 ‘은둔형 외톨이’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의미를 순화하기 위해 ‘고립 청년’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
 - ‘20대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 즉 ‘생물학적으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연령에서 비교적 초반기에 해당하는 20대 이후의 사람이 심리·경제적 독립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
- 모세중(2020)은 다음과 같이 은둔형 외톨이의 다섯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서, 이들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로 규정 (윤철경·서보람, 2020: 6-7에서 재인용)
 - 기간의 기준은 다음에서 제시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 설정
 - ①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②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③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④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⑤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은둔형 외톨이란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는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
- 오오쿠사 미노루(2020b: 57)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일본의 히키코모리와는 사회 구조나 양상 차이에 기인한 여러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해석

- 여인중(2005)이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에스프레소라면,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카페오레’라고 표현했지만, K2그룹의 카나모리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똑같다. 단지 속도와 정도가 다르다. 한국이 더 빠르고, 또 격하다’고 지적
- 오오쿠사 미노루(2020b: 57)는 한국에서 알려진 일본의 히키코모리 상은 아주 일면적이고, 심각한 케이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
- 실제로는 그 양상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하고, 나름의 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은둔과 활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
- 동시에 일본보다는 가볍다고 치부되고 있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도, 화장실조차 안 가고 방 안에서 처리하거나, 은둔이 10년, 20년 된 경우 등 심각한 사례도 많음을 지적

법규상의 정의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립
 - 이러한 배경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해서 제기되었거나 통과된 법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김혜원 등, 2021: 27-28)
-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 발의, 2017.10.18.)
 - 은둔형 외톨이란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립되어 머무르면서 가족 또는 소수의 특정인 이외의 사람들과는 일체의 교류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립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 * ‘집이나 한정된 공간’, ‘일정 기간 이상 고립’,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시간·활동의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2018.12.28.)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함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8.1.17.)
 - 은둔형 외톨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함
 -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도 병행하도록 규정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10.15. 제정)
 -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준비모임 조례안」(2020)
 - 은둔형 외톨이를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계가 단절되어 가정 등 한정된 공간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며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 기간의 기준은 다음에서 제시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 설정하여, 은둔 기간의 대인관계에 주목해 대상자를 구분
 - ①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②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③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④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⑤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 위의 다섯 가지 상태는 모세중(2020)이 제시한 은둔형 외톨이의 다섯 가지 특징과 동일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0.10.29.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
 - * 다른 조례와는 달리 고립의 주원인을 미취업으로 인식하고 은둔의 공간도 명시하지 않음
-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3.24. 제정)
 - 광주광역시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5.20.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을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7.14.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 조례의 정의와 유사하나, 은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9.30.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 광주광역시 조례와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동일하게 정의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9.30. 제정)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 부산광역시 조례와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동일하게 정의

-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11.4. 제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에서의 정의와 동일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0.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 정의
 - * 고립의 주원인을 미취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와 유사하나, 은둔의 공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별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12.31. 제정)
 - 사회적 고립청년을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으로 정의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와 와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해 동일하게 정의

2.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유형

은둔형 외톨이의 구분 기준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로서 ① 공간 ② 활동 ③ 시간 등을 들 수 있음
 - 즉,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의미(김혜원 등, 2021: 29)
 - 또한 대부분의 정의에서는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은둔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발견

1] 공간

- 은둔의 공간에 대해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과 같이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 등
- 반면에 가정, 집 안, 자신의 방 등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간을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함
 - * 사이트 다마키(2002), 청소년위원회(2005),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준비모임 조례안」(2020),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 등

2] 활동

- 은둔형 외톨이 중에는 일부 집에서 벗어나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활동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준비모임에서 제안한 조례안(2020)에서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 머무는가뿐만 아니라, 은둔 기간의 대인관계에 주목하여 대상자를 구분(임성수, 2020: 91)
- 활동에 대해 ‘(정상적) 사회참여 또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경우’, ‘사회참여(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 사이트 다마키(2002), 여인중(2005), 청년재단(2020),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0)»,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21) 등

- 위와 같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칭하면 정책 대상이 집안에만 있는 이들로 한정되기 쉬운데, 이에 대해 박대령(2020)은 사회활동을 거의 안 하지만 바깥활동을 하는 외톨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오상빈(2020: 24)도 방이나 집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모두 고립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 사이토 다마키(2002)는 사회적 은둔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택에 틀어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혼자 편의점이나 비디오 대여점 또는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등 비교적 활동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족 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은둔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
 - * 이러한 배경에서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와도 깊은 관계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다'라는 표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함
- 여인중(2005)도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참여를 하지 않으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는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로 인식
- 이를 종합하면,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외 대인관계가 없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취학, 취업, 가족 외 친밀한 대인관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김혜원 등, 2021: 31)

③ 시간

- 일반적으로 은둔의 지속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 기준으로 제시
- 2000년대 초반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최근에도 3개월 기준을 제시한 연구**가 있음
 - * 여인중(2005), 청소년위원회(2005) 등
 - **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수행한 청년재단(2020: 4)이 3개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오상빈(2020: 23)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3개월이면 고립 생활이 시작되어 굳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했음을 밝힘

- 사이토 다마키(2002)는 6개월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DSM-IV의 정신분열형 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의 6개월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모나 전문가들이 이들을 과잉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포함(김혜원 등, 2021: 31-32)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연구와 조례안이 대체로 6개월을 기준으로 설정
 - * 모세중(2020),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준비모임 조례안」(2020)
-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법률안과 조례가 이에 해당
 - *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2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20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2021) 등
- 연속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집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간헐적 교류나 사회참여를 제외하고는 주로 집 안에만 머무르는 경우도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김혜원 등, 2021: 32)
 - * 현장에서도 이러한 상태로 시작했다가 점차 지속적인 은둔 상태에 빠지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 일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는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는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덧붙여 배제되는 기준에 해당
 - 다양한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심한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은둔형 외톨이와 근본 원인이 다름
 - * 가령 조현병이나 심한 우울증에 의한 은둔 생활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일반적 특징과는 비교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
 - 사이토 다마키(2002)는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이 은둔으로 인해 2차적으로 파생된다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제시(김혜원 등, 2021: 33에서 재인용)

- ① 모든 증상이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을 전후로 나타남
- ② 모든 증상이 은둔형 외톨이의 장기화와 함께 악화
- ③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속하게 개선되거나 소멸
- ④ 일단 소멸된 증상도 은둔 상태가 재개되면 다시 출현

- 윤일규 의원(2019)도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사회적 외톨이는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면 정확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병을 ‘치료’하고 다친 곳을 ‘재활’한다는 입장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을 ‘치유’한다는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김혜원 등, 2021: 33에서 재인용)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 범위

- 은둔형 외톨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장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음

- 일본에서 2015년과 2018년 걸쳐 실시된 두 조사에서 15~39세와 40~64세의 히키코모리 인구가 각각 54만 1천 명과 61만 3천 명으로 추산

* 이러한 실태는 히키코모리의 고령화와 장기화 문제, 이른바 ‘8050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본 사회에 환기하는 결과를 나타냄(박지선, 202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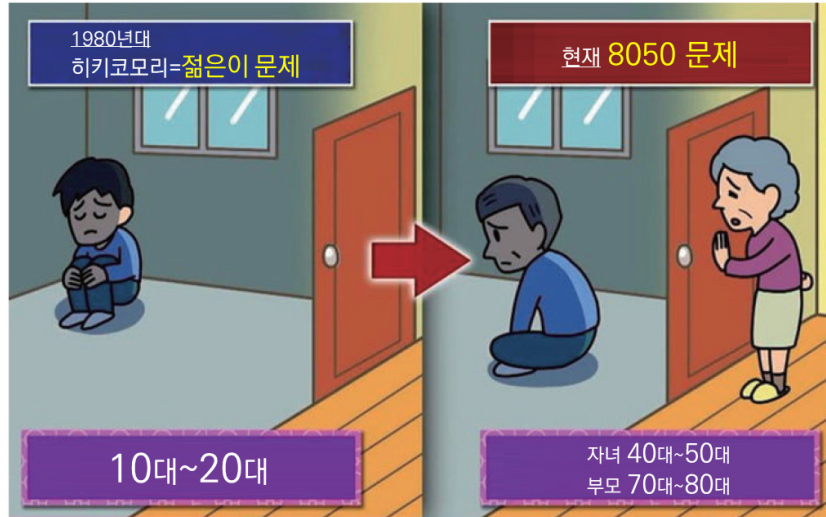
** 50대의 히키코모리 자녀와 80대의 부모가 한집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을 빚댄 것으로, 사회 부적응 청년들의 고령화가 초래한 빈곤과 어둡고 우울한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조어(김광희, 2020: 475)

-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20대 초였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현재 40대 외톨이로 지내고 있으며, 추후 일본처럼 장년 외톨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박대령, 2020)

* 청년재단(2020)의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집단은 20대(20~29세)로 80.8%를 차지했고 10대(17~19세)와 30대(30~37세)가 각각 4.3%와 14.9%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 범위가 넓고 높은 연령층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가 27명의 부모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자녀(은둔형 외톨이)의 연령대는 20~24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5~29세(25.9%), 30~39세(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5~19세와 40세 이상도 각각 11.1%와 3.7%를 차지(주상희, 2020b: 68)

• 그림 2-1 | 일본의 8050 문제를 표현한 그림 •



자료 : 오오쿠사 미노루(2021: 50)의 재구성

- 은둔의 시작 시기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성인으로 이행되기 전에 은둔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고려되어야 함(윤철경·서보람, 2020: 7)
 - 성인기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중·장년 또는 노인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구별되어야 함
 -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시작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장애, 좌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고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시작한 은둔 경험은 그 이후의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고, 방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가도 언제 방 안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원이 필요
-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연령의 어느 범위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보느냐를 결정할 때 더욱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
 - 청년의 연령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30대 중반 또는 후반부터는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청년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각각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청년기본법」상에서도 청년을 같은 범위의 연령으로 설정
- * 광역자치체별로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의 범위는 시작과 마감 연령이 각각 18, 19세 등과 34, 39세 등으로 다양

• 표 2-1 | 광역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의 청년 연령 비교(2021년 12월 현재) •

단위 : 세(개)

연령의 범위		→ (세)		해당 시도(수)
부터	까지	18 19	34 39	
18	34			부산(1)
	39			대전, 강원, 전북, 전남(4)
19	34			울산, 세종, 경기, 경남(4)
	39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제주(8)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 이러한 배경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청년에게만 한정할 수 없고, 같은 특징을 보이더라도 연령대별로 당면한 어려움과 은둔의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이 시기의 은둔으로 학업 중단,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관계의 기회 상실 등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심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우며, 스스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무망감, 무력감을 내면화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같은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므로,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청년, 은둔형 외톨이 중·장년 등과 같이 연령대별 구분이 필요
 - 윤일규 의원(2019)은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사회적 외톨이 현상의 발생 시기에 대해 청소년기(13~19세), 성년 이후 청년기(20~39세), 중·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등으로 구분(김혜원 등, 2021: 35에서 재인용)

은둔형 외톨이의 유형 구분

- 오상빈(2019b: 11)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더는 노력하지 못하는 ‘무망감’이 은둔을 지속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
 - 은둔형 외톨이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특성, 요인, 대안 등을 제시(오상빈, 2019b: 17)

• 표 2-2 | 은둔형 외톨이의 유형별 속성, 요인 및 정책 대안 •

특성	속성	요인			대안
		개인	가족	사회	
무망감형	• 무기력	• 자기 효능감 낮음 • 무망감	• 가족의 비난과 욕설 • 부모 간 갈등	• 경쟁사회 부적응	• 자기주장 훈련 • 자존감 향상 훈련 (직업교육)
비난형	• 네 탓	• 부정적인 사고 • 언어 활발 • 행동 없음	• 부모 방치 • 모자 일체화	• 기대 수준이 높은 사회	• 인지 행동 접근 (공동체 생활)
대인 기피형 (사회기술 낮음)	• 대인공포 및 활동 거부	• 내향형 • 대인관계 능력 낮음	• 가족 공동체 해체 • 부모 활동 낮음	• 의식주 해결 • 대인관계 단절	• 사회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훈련(가족 상담, 공동체 생활)
회피형	• 회피 과잉 공급	• 상황 회피 • 행동-인지 왜곡	• 가족 정서 단절 • 수동 공격 • 신뢰 없음	• 사적 공간에서 의식주 해결	• 과잉 공급 • 가족과 분리 독립
수동 공격형	• 가족과 정서적 단절	• 부정적인 시각	• 건강하지 않은 양육 훈육 • 가족의 폭력	• 전문적인 사회 요구	• 가족 상담(치유) • 가족과 분리 독립

자료 : 오상빈(2019b: 17)의 재구성

- 은둔형 외톨이의 활동 범위에 따라 생활 환경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넓은 경우, 각각 ‘좁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와 ‘넓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좁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 :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도 편의점 외출만 하는 경우
 - ② 준 은둔형 외톨이 : 좁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에 더해 취미 관련 외출을 하는 경우

③ 넓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 : 좁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와 준 은둔형 외톨이를 합한 모든 대상

- 청년재단(2020)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의 은둔형 외톨이 구분은 실제 대상자들이 보이는 활동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은둔형 외톨이 중 대부분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가족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이 없을 때나 야간에는 가까운 외출**을 하는 경우가 관찰되기도 함

** 신발에 흙이 묻어 있거나 자전거가 놓여있는 위치 등을 통해 가족들이 추측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출은 피규어 수집이나 게임 캐릭터 구매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거나 필수적인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

• 그림 2-2 | 활동 범위에 따른 히키코모리 유형 구분 •



자료 : 内閣府(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일본 나가노현 정신보건복지센터 https://www.pref.nagano.lg.jp/seishin/heisetsu/hikikomori/withdraw_config.html#mylinks(검색일: 2021.12.19.)

3.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개요

-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재 까지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문제로 조금씩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통계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박애선, 2018; 김혜원 등, 2021: 46에서 재인용)
- 관련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일본의 히키코모리 규모 산출법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인구를 약 10만 명으로 추계하기도 함(여인중, 2005)
- 최근 발표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청소년

- 청소년위원회(2005) 연구의 결과,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문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
- 전국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 1, 2학년 1,461명을 대상으로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
 - * 사회적 회피 현상을 나타냈거나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부적응 청소년을 말함

• 표 2-3 |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의 실태와 현황 •

구분	응답 내용	특 징
고위험군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음 • 친구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음 • 학교나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진단기준에 근접
위험군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음 • 친구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
잠재군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이 될 가능성을 가진 집단 • 개입과 예방의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 : 괄호 안 수치는 전체 인문계 고등학생 수 대비 비율을 의미
 자료 : 청소년위원회(2005: 18-19)의 재구성

- 연구의 결과에서 약 10%의 응답자가 은둔형 외톨이 관련 문제를 경험하거나 추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관련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은둔형 외톨이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사전 차단이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19~39세

- 윤철경·서보람(2020)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자료(김기현 등, 2017)를 활용해 19~39세 대상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률과 추정인구를 발표
 - 은둔형 외톨이를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며 장애나 임신·출산이 고립의 원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

• 표 2-4 | 19~39세 대상 은둔형 외톨이의 추정인구 산출(2017년) •

단위: 명, %

구 분	해당 인구(A)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B)	추정 인구(A×B)	
전 체	14,903,919	0.91	135,625	
성	남	7,731,262	0.75	57,984
	여	7,172,657	1.08	77,464
연령	만 19~29세	7,438,631	0.96	71,410
	만 30~39세	7,465,288	0.88	65,694

자료 : 윤철경·서보람(2020: 10)의 재구성

- 결과를 살펴보면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인구 중 은둔형 외톨이는 약 13만 5천 명 이고, 발생률은 0.91%로 추정
 - 지방 소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현재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음을 시사

- 은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15세 미만의 인구와 39세 이상의 인구를 조사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20~40대

- 윤일규 의원(2019)은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20~49세의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21만 2천 명으로 추정(김혜원 등, 2021: 48에서 재인용)
 -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이나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년의 은둔형 외톨이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은둔형 외톨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젊은 세대의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년의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중년 은둔형 외톨이는 젊은 청년 은둔형 외톨이보다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성이나 성향도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III

사례 분석: 실태조사 및 지원시책

1. 국내 사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20)

실태조사의 배경과 목적

- 2019년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이에 근거해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이들의 형성 과정,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및 개입 전략 추진 등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는 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실태조사의 범위

- 시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범위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실태 범위에 해당하는 2020년의 단년도로 설정
 - 간접적인 범위는 지원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언의 범위에 해당하는 2020~2024년의 5개년 기간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함
- 실태조사의 대상적 범위로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65세 미만으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제외),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포함
- 내용적 범위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성·연령별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경험, 은둔형 외톨이의 욕구 및 취업·직업훈련 경험, 소득·주거 상태 및 복지서비스의 실태와 욕구,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심리·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포함

실태조사의 방법

-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
 - ① 현재 은둔형 외톨이 :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음,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음,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 등의 생활을 3개월 이상 하는 사람
 - * 단, 은둔 생활의 계기가 신체적인 질병 또는 장애,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② 과거 은둔형 외톨이 : 과거에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 은둔형 외톨이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 외출, 은둔 기간, 계기, 첫 은둔 시기 등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 주요 활동, 관계 형성, 식사 방식 등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 외로움, 친구 사귀기, 학습, 취·창업 활동, 문화여기활동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
 - 심리 정서적 경험, 사회적 관계 등 은둔형 외톨이 생활의 원인 관련 변인
 - 상담 경험, 상담 평가, 활동 욕구 등

- 은둔 생활을 벗어난 계기(과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 외출, 은둔 기간, 계기, 첫 은둔 시기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특성
 - 주요 활동, 관계 형성, 식사 방식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일상생활
 - 외로움, 친구 사귀기, 학습, 취·창업 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일상생활 어려움
 - 외로움, 친구 사귀기, 학습, 취·창업 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은둔형 외톨이 가족으로서의 어려움
 - 상담 경험, 상담 평가, 활동 욕구 등 은둔형 외톨이인 가족의 상담 경험 및 활동 욕구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
- 모집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보호자)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찾아 조사하는 목적 표집의 방법으로 조사
 -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
 - ① 조사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내 아파트 거주 세대의 20%에 해당하는 10만 세대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
 - *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
 - ② 광주광역시 청년, 청소년 상담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
 - ③ 광주광역시 및 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건강연구소 등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경험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대상으로 조사
-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 방송 및 신문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IDI: In-depth Interview)을 진행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된 배경, 현재 생활에 관한 심리 및 사회적 상황, 미래 희망 및 지원 욕구 등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면담을 진행
 - * 심층 면접의 내용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취·전사한 후 MAXQD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추적 코딩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심층 면접의 결과는 실태조사의 결과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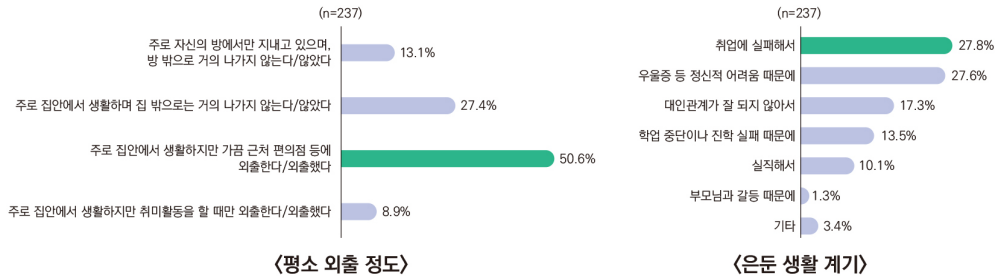
유효표본의 수 및 응답자 특성

- 조사 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가족으로 구분
 - 은둔형 외톨이는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와 과거 은둔 생활을 했던 당사자로 구분
 - *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은 현재와 과거 통합하여 분석
- 조사 기간 내 모두 1,095개의 부수가 제출되었고, 총 5차에 걸친 데이터 정제의 과정을 거쳐 유효표본의 수는 당사자 237부, 가족 112부 등 총 349부로 집계
 -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226명(64.8%), 여성 123명(35.2%)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0대(155명, 44.4%)와 30대(93명, 26.6%)가 많았으며, 최종 학력은 대졸 이상이 145명(41.5%), 3~4명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56.2%(195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냄

은둔형 외톨이 특성

- 은둔형 외톨이의 절반 이상인 50.6%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
-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주된 계기는 ‘취업에 실패해서’로 응답

· 그림 3-1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 은둔형 외톨이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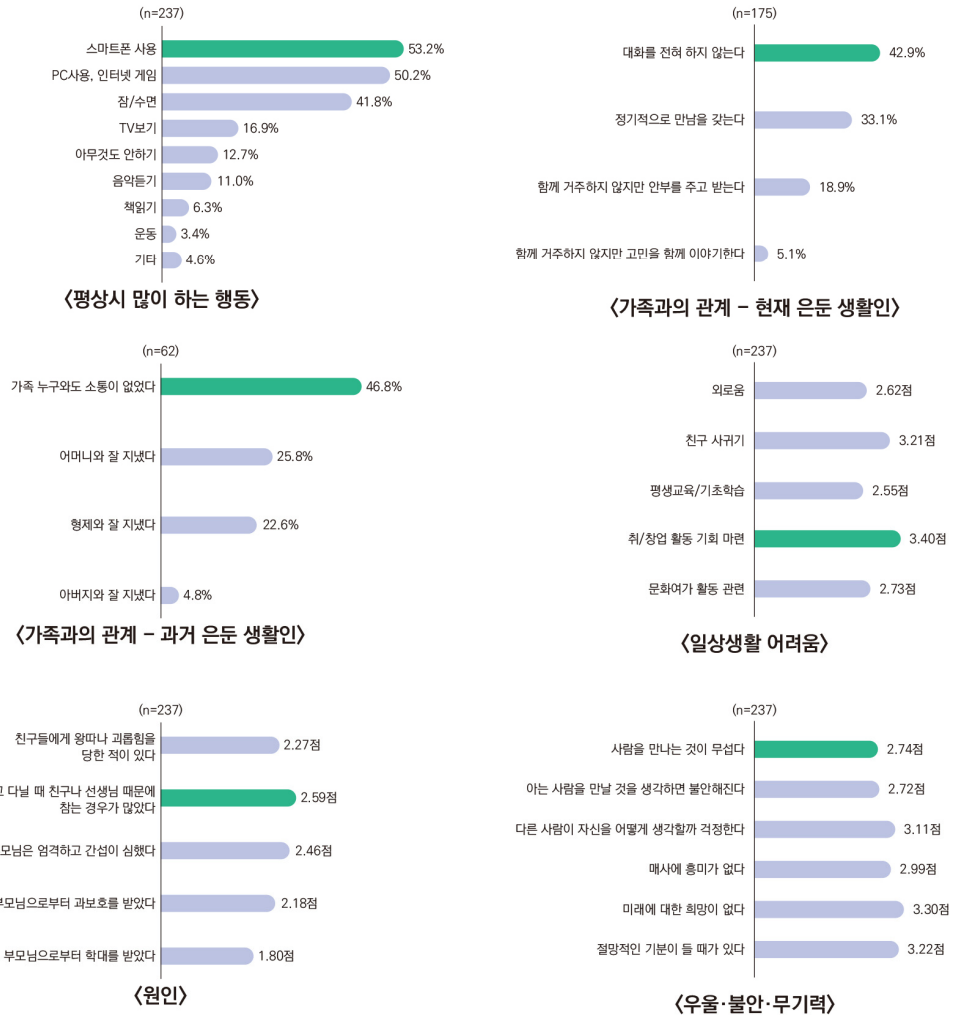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157-158)의 재구성

일상생활

- 평상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 (53.2%)으로 나타났고, 'PC 사용 및 인터넷 게임'도 과반이 넘는 50.2%를 차지
- 현재 은둔 생활을 하는 응답자의 42.9%는 가족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과거에 은둔 생활을 경험했던 응답자는 46.8%가 과거 은둔 생활을 했던 시절에 가족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일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취·창업 활동 기회 마련'으로 4점 만점에 3.4점을 나타냄
- 원인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나 선생님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2.59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3.3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냄
- 충동성 및 분노 조절 영역에서는 '큰 소리로 격분하는 경우가 있다'는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박 영역의 경우 2.76점을 나타냄
- 중독 및 문제행동의 영역에서는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잠시도 진정할 수 없다'는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2.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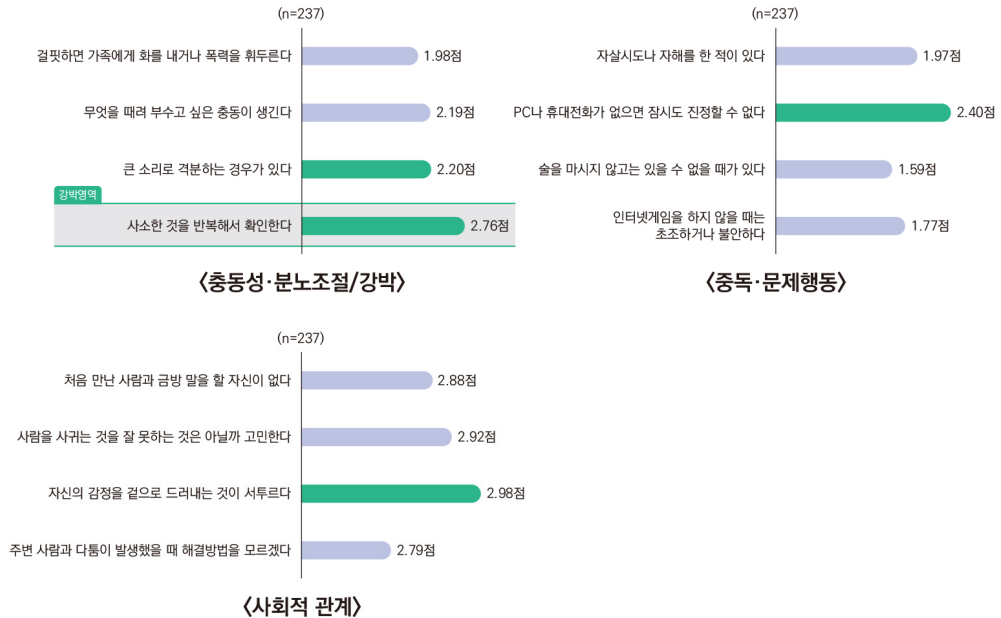
-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는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2.9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냄

• 그림 3-2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 일상생활(1) •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159-162)의 재구성

• 그림 3-3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 일상생활(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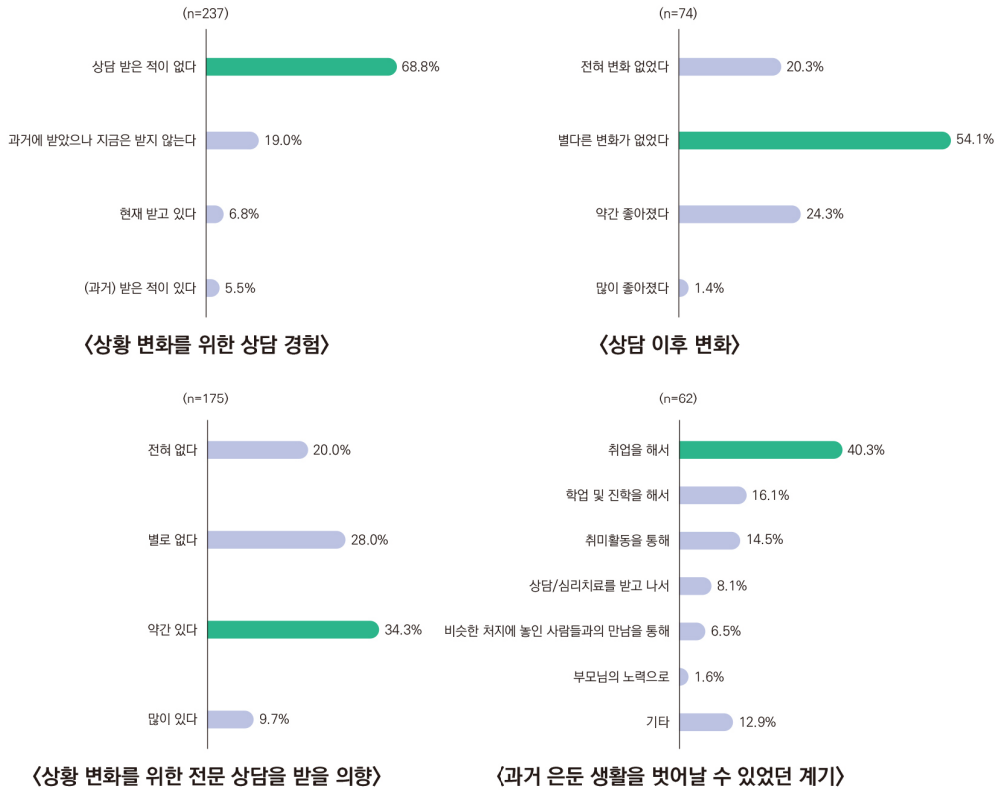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162-163)의 재구성

상담 및 지원

- 은둔 생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상담받고 있는 응답자는 31.3%로 나타남
 - 그 중 '현재 받고 있다'라는 응답자는 6.8%로 파악
-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담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는 비율과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은 각각 25.7%와 74.3%로 나타남
- 현재 은둔 생활 중인 응답자 중에서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각각 44%와 48%를 나타냄
- 과거 은둔 생활을 경험했던 응답자의 40.3%는 취업하면서 은둔 생활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

• 그림 3-4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 상담 및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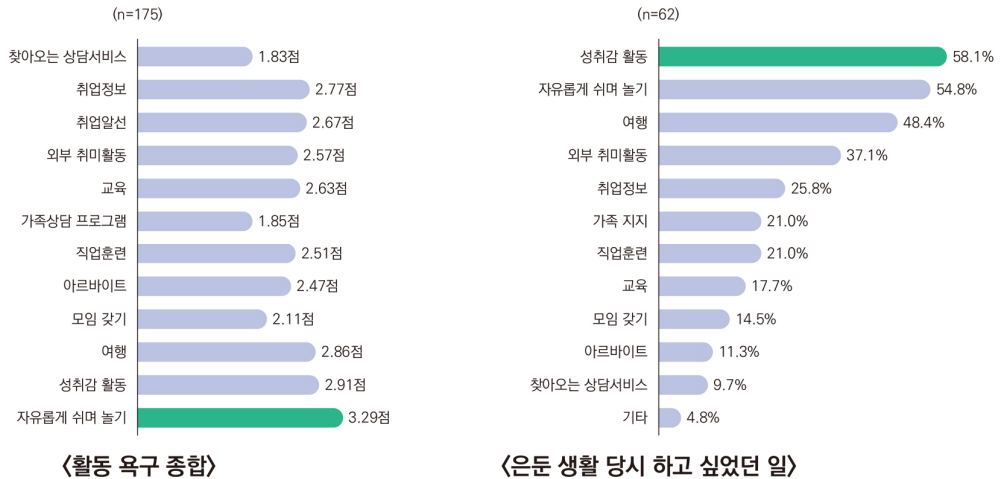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164-165)의 재구성

활동 욕구

- 현재 은둔 생활 중인 응답자의 활동 욕구는 '자유롭게 편하게 쉬며 놀고 싶다'가 4점 만점에 3.29점으로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남
- 과거에 은둔 생활을 했던 응답자는 은둔 생활 당시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이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유롭고 편하게 쉬며 놀고 싶었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남

• 그림 3-5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 활동 욕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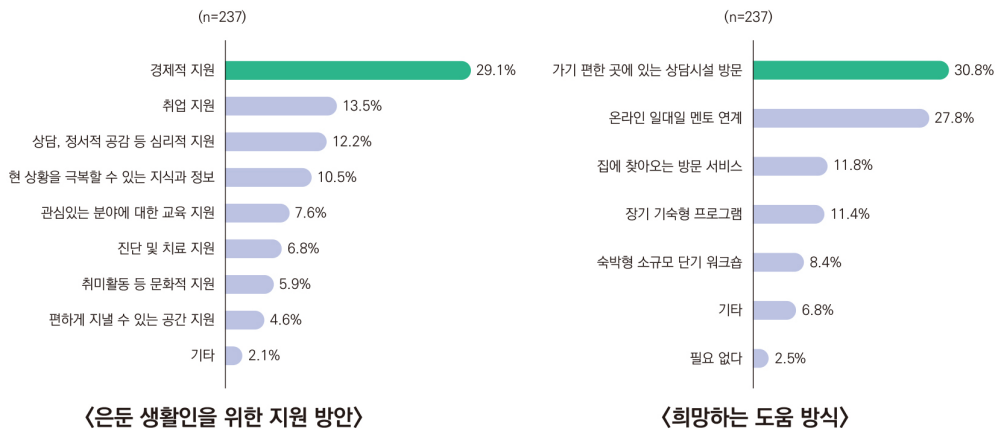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164-165)의 재구성

지원

- 은둔 생활인을 위해 ‘경제적 지원’(29.1%)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도움 방식의 응답은 ‘가기 편한 곳에 있는 상담 시설의 방문’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그림 3-6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 지원 •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164-165)의 재구성

2. 국외 사례: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시책 및 실태조사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

-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정신 보건 복지, 아동 복지, 취업 지원 등에 있어 히키코모리를 포함한 상담 활동 등의 사업을 시행해왔지만, 2009년부터는 히키코모리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사업으로 구성

①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2009년~)

-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전문적인 상담 창구로서 기능을 갖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 설치·운영하는 사업

* 2021년 4월 1일 현재 모든 도도부현(47개)과 지정도시**(20개)에서 총 79개소가 설치·운영 중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아오모리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후쿠이현, 효고현, 사가현 등 6개 현과 사카이시, 고베시, 후쿠오카시 등 3개 지정도시에 각각 2개소씩, 후쿠오카현에는 3개소가 설치되었고 히로시마현과 히로시마시의 경우 특이하게도 3개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의해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도시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통 도부현道府県의 사무를 이양받고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50년대 100만 명에서 1970년대 80만 명을 거쳐 2000년대 70만 명으로 인구 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어 2021년 현재 20개의 시가 지정

-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히키코모리 지원 코디네이터가 히키코모리 또는 이들 가족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적절한 기관에 연결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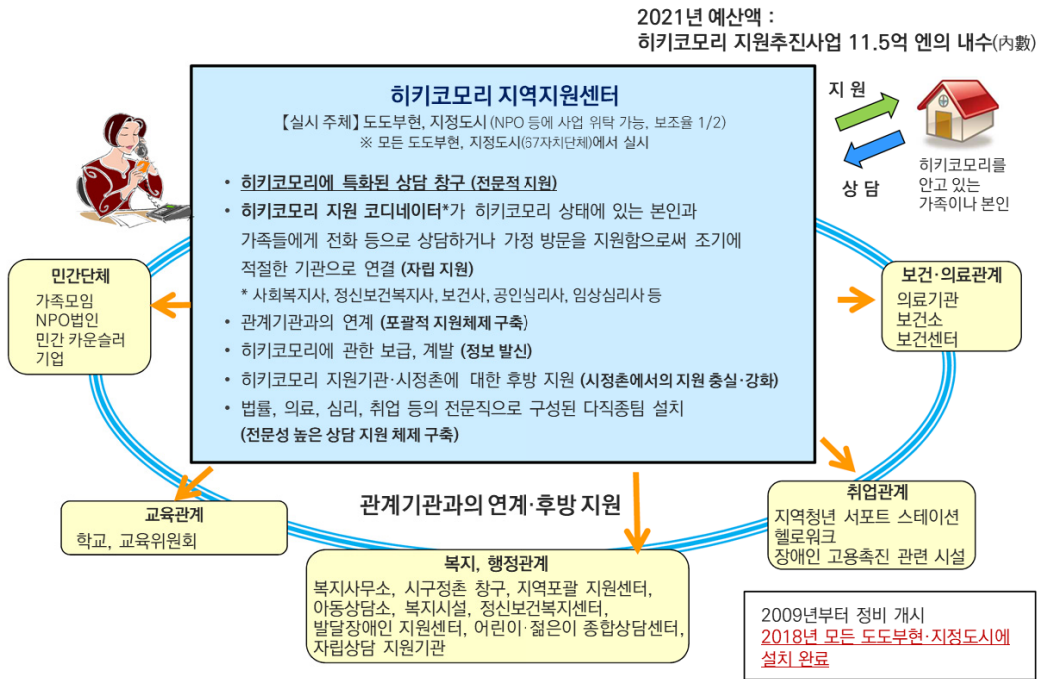
* 2019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에서 연계를 많이 한 곳은 1위 보건소 및 보건센터 757건(12.2%), 2위 민간지원단체 666건(10.7%), 3위 의료기관 547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厚生労働省, 2021: 28)

■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검색일: 2021.12.05.)

■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상황 리스트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515493.pdf>(검색일: 2021.12.05.)

- 또한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폭넓은 정보의 제공 등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

· 그림 3-7 |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200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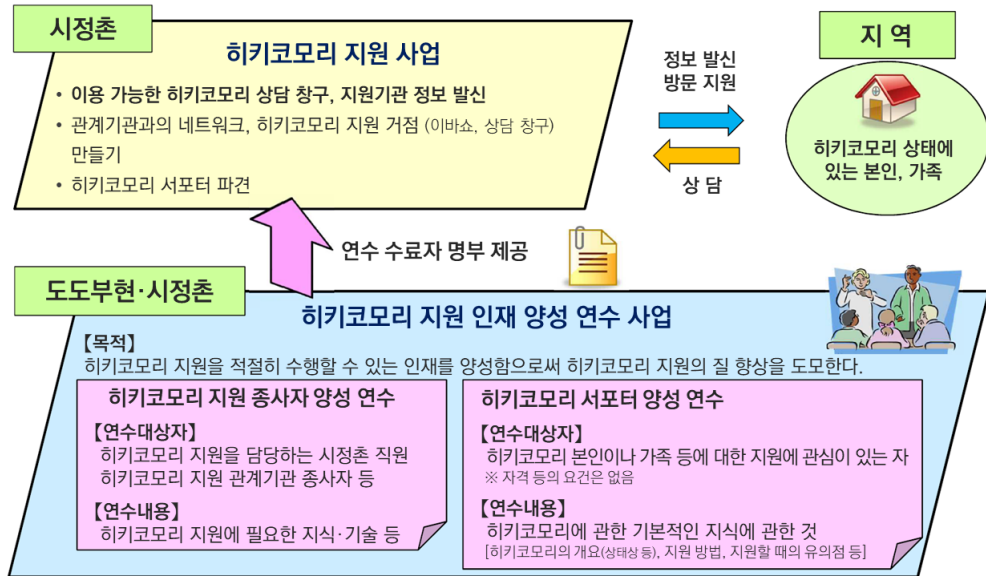
역주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직업 상담, 취업 체험 등을 제공하는 후생노동성의 위탁기관을 말하며(김기현·유민상, 2019: 158-159), '헬로워크(Hello Work)'는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의 별칭으로 후생노동성이 국민의 안정된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설치한 공공지원센터를 의미(김기현·유민상, 2019: 162)

자료 : 厚生労働省(2021: 13)의 재구성

②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 양성 연수(2013년~)

- 히키코모리에 대해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히키코모리 지원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을 담당하는 시구정촌(市区町村) 직원 등에게 '히키코모리 지원 종사자 양성 연수'를, 당사자에 대한 방문 지원 등(피어 서포터 활동 포함)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히키코모리 서포터 양성 연수'를 실시

• 그림 3-8 |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 양성 연수·히키코모리 지원사업(2013년~ , 2018년부터 확충) •



역주 : 이바소事務所란 히키코모리와 같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개인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안심하고 만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승인과 자기 승인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定立茲也, 2019: 김혜원 등, 2021: 380에서 재인용)
자료 : 厚生労働省(2019: 13)의 재구성

③ 히키코모리 지원사업(2018년~)

- 시정촌에서 히키코모리 지원 기반을 구축해 히키코모리들이 개인 상황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주민에게 가까운 지원 거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히키코모리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거점을 만들면서 히키코모리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김기현·유민상, 2019: 160)
-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상담 창구의 주지, 히키코모리 실태 파악, 히키코모리 당사자나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소 만들기, 히키코모리 서포터 파견 등을 실시

생활 곤궁자(困窮者) 자립지원제도

- 위에서 살펴본 사업 외에 히키코모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2015년 최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제정된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들 수 있음

- 이 제도는 ‘취업준비 지원사업’과 ‘자립상담 지원사업’ 등 2개의 사업으로 구성(김혜원 등, 2021: 372)
 - 2019년 현재 취업준비 지원사업은 496개 자치단체가, 자립상담 지원사업은 전국 905개 자치단체가 실시(内閣府, 2020: 113)

① 취업준비 지원사업

- 취업에 중심을 두고 생활 곤궁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 주로 대상자에게 취업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상생활 자립, 사회생활 자립,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 준비 지원 상담자가 히키코모리 집으로 방문해 지원 사항을 의논하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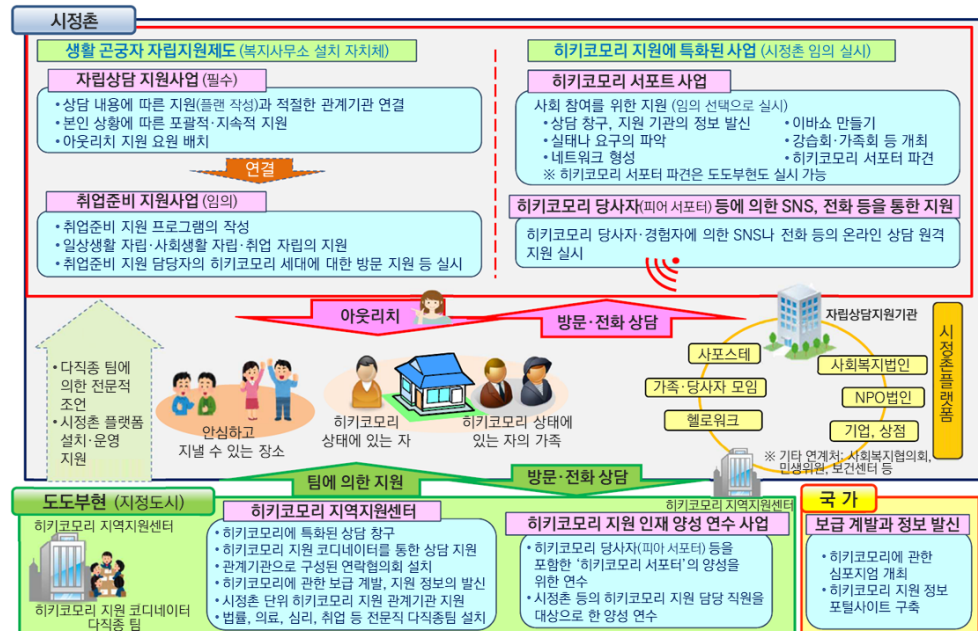
② 자립상담 지원사업

- 주거 확보금 마련, 일시적 생활 지원, 가계 개선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며 최근에는 코로나 특별 지원도 실시
- 복지사무소가 설치된 자치단체가 직영·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세 과정으로 진행
 - ① 상담 창구에 방문했을 때 생활 곤란자와 상담하여 대상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
 - ② 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는 지원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조정 회의에서 조정하며, 법정 서비스와 관련된 자치단체가 지원을 결정
 - ③ 지원 민생위원(지역복지와 연계된 상담자)에 의한 돌봄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사·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을 조정
- 상담자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관계 기관으로 연결
- 상담 내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받은 복지사무소나 기관은 또다시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히키코모리를 지원

- 위의 두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히키코모리 대상자를 돕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임
 - 취업과 생활 지원이라는 성격이 다른 면을 연결하여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며,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와도 연대하여 내담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도 함

히키코모리 지원시책의 전체상(全體像)

- 히키코모리 관련 상담 창구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에 설치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또는 복지사무소 설치 자치체에서의 자립상담 지원기관 등이 있음
-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시정촌 지역의 방문 지원 등에 충실하고 현(縣) 지역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에 의료·법률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전문직 팀을 설치해 전문적인 조언을 실시하는 등 시정촌에 대한 지원 체제를 확충하여 상호 연계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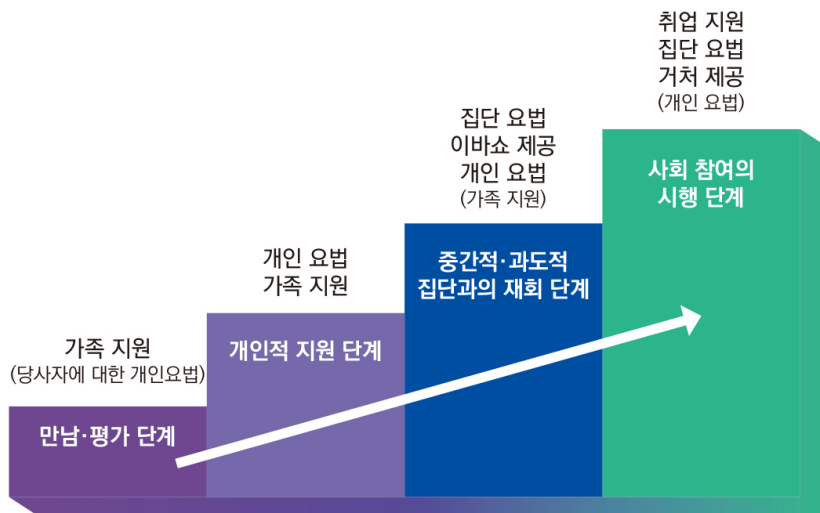
역주: ¹ 이바소(居場所) - 히키코모리와 같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개인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안심하고 만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승인과 자기 승인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물리적 공간(足立竝也, 2019; 김혜원 등, 2021: 380에서 재인용)
² 사모스테(サポステ) - 2006년에 개설된 '지역청년 서포터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의 약칭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직업 상담, 취업 체험 등을 제공하는 후생노동성의 위탁기관(김기현 유민상, 2019: 158-159)
³ 헬로워크(ハローワーク) -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의 별칭으로 후생노동성이 국민의 안정된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설치한 공공지원센터

자료: 厚生労働省(2021: 12)의 재구성

히키코모리 평가·지원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 후생노동성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후생노동과학 연구비 보조금 심리건강 과학 연구사업으로 수행된 ‘사춘기의 히키코모리를 초래하는 정신과 질환의 실태 파악과 정신의학적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의 성과로 <히키코모리 평가·지원 가이드라인>을 개발·발표
 - 히키코모리에 대해 정신병과는 분명히 구별된 비정신병성 현상으로 정의하면서도, 실제로는 진단을 확정하기 전의 조현병 증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 (厚生労働省, 2010: 6)
 - * 당사자의 내원과 진단이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정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관여해야 함을 강조
- 히키코모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다차원적 모델 속에서 다각도로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해 실제 지원을 시작한 경우에도 계단식으로 단계를 밟아 히키코모리가 사회기관과 연결되는 최종 목표에 달성되도록 노력

• 그림 3-9 | 히키코모리 지원의 여러 단계 •



역주 : ‘이바쇼(居場所)’란 히키코모리와 같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개인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안심하고 만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승인과 자기 승인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是也, 2019; 김혜원 등, 2021: 380에서 재인용)
 자료 : 厚生労働省(2010: 42)의 재구성

〈히키코모리 평가·지원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한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의 요점

1. 히키코모리 지원의 다차원적 모델(가이드라인 25쪽)

- 히키코모리 지원은 당사자와 그 주변 상황의 전체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야 한다.
 - ① 첫 번째 차원 : 배경에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특수 지원
 - ② 두 번째 차원 : 가족을 포함한 스트레스가 환경을 바꾸거나 지원기관을 발굴하는 등 환경적 여건을 개선
 - ③ 세 번째 차원 : 히키코모리가 의미하는 사춘기 자립 과정의 좌절에 대한 지원

2. 지역 연계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가이드라인 26쪽부터)

- 히키코모리 지원은 교육, 보건,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의한 다면적인 지원이 필요

3. 가족 지원(가이드라인 35쪽부터)

- 당사자가 혼자 상담하러 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등교 거부에 의한 히키코모리 사례, 가족과 함께 오는 성인 히키코모리 사례, 가족만 상담하러 오는 사례의 경우, 첫 번째 단계인 가족 지원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당사자 중심의 지원 단계로 진행해간다.
- 가족들이 지원자들로부터 공감받고 수용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가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 당사자에 대한 지원(가이드라인 41쪽부터)

- 대부분은 가족만 상담받는 가족 지원에서 시작해 어느 시점에서 당사자가 상담받는 형태 또는 아웃리치형 지원이 시작되는 경로를 거친다.
- 당사자와 지원자의 직접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우선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면담을 해야 한다.
- 개인 치료적인 상담으로는 얻을 수 없는, 또래 집단과의 활동을 경험한 당사자들 중에는 보다 명확하게 취업을 위한 집단활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결한다.
- 히키코모리 현상 자체를 약물요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해 종종도나 유효성을 평가한 후 약물요법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방문 지원: 아웃리치형 지원(가이드라인 53쪽부터)

- 등교 거부나 히키코모리 지원으로는 당사자가 상담이나 치료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혹은 상담이나 진찰을 단행할 수 없는 당사자에 대한 한 걸음 깊이 있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가정 방문을 중심으로 한 아웃리치형 지원이 효과적인 지원법 가운데 하나로 기대되고 있다.
- 방문 지원의 타이밍을 신중히 고려해 방문 실시 전 준비 단계에서 ① 정보 수집과 관계 형성 ② 달성 목표의 명확화 ③ 가족과 당사자에게 사전 연락 ④ 적절한 방문 세팅 ⑤ 관계 기관과의 정보 교환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당사자가 방문을 거부해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지원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므로 당사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당사자의 진심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한다.
- 방문 지원(아웃리치형 지원)의 목표는 정신과 의료나 사회활동에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사회자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 자료 : 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요)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6.pdf>(검색일: 2021.12.15.)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규모의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세 차례 실시(박지선, 2020: 30-31)

① 2010년 젊은이 의식에 관한 조사: 히키코모리에 관한 실태조사(内閣府, 2010)

- 전국 규모로는 최초로 2010년에 내각부에 의해 실시
- 조사 결과, 히키코모리 인구수가 69만 6천 명(출현율 1.79%) 정도로 추산
 - * 35~39세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히키코모리 잠재군도 15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② 2015년 젊은이들의 생활에 관한 조사(内閣府, 2016)

- 39세 이하의 히키코모리 인구수가 약 54만 1천 명으로 추산되어, 2010년 조사 때보다 15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내각부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했으나,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임에도 내용의 연속성을 간과해 현재의 히키코모리 실태와 동떨어진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 2010년 조사 결과 35~3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음에도 40세 이상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히키코모리의 고령화가 반영되지 못했고 히키코모리 잠재군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池上正樹, 2016; 박지선, 2020: 30에서 재인용)

③ 2018년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内閣府, 2019)

- 2018년 중년 인구(40~64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 결과, 중년의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61만 3천 명으로 추산되었고, 이 중 76.6%가 남성인 것으로 파악
- 또한 취업 빙하기 세대인 40대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사회적 단절 기간에 있어 5년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20년 이상인 경우도 20%에 달해, 이러한 실태는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및 장기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본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결과로 작용

• 그림 3-10 | 젊은이들의 생활에 관한 조사(2015) 및 생활상황에 관한 조사(2018)를 통한 히키코모리 추계 인구 •

64세 40세 39세 15세	2018년도 조사 (40~64세)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 안 나감 또는 방에서 거의 안 나감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집 근처 편의점 등에는 다녀옴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기 취미에 관련한 일을 볼 때만 외출함
	광의의 히키코모리 47명 (61.3만 명)	협의의 히키코모리 7명 (9.1만 명)	협의의 히키코모리 21명 (27.4만 명)	준 히키코모리 19명 (24.8만 명)
	2015년도 조사 (15~39세)	자기 방에서는 나오지만 집에서 안 나감 또는 방에서 거의 안 나감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집 근처 편의점 등에는 다녀옴	평소에는 집에 있지만 자기 취미에 관련한 일을 볼 때만 외출함
	협의의 히키코모리 49명 (54.1만 명)	협의의 히키코모리 5명 (6.5만 명)	협의의 히키코모리 11명 (12.1만 명)	준 히키코모리 33명 (36.5만 명)

주 : ¹ 상단과 하단의 괄호 안 인원수는 각각 '조사 시 해당 인원'과 '전국 추계 수'를 의미

² 2018년 조사에서 유효 회수 3,248명(조사 대상 5,000명) 중 47명이, 2015년 조사에서는 유효 회수 3,115명(조사 대상 5,000명) 중 49명이 광의의 히키코모리로 파악

자료 : 厚生労働省(2019: 3)의 재구성

IV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 방안의 모색

1.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

실태조사 대상자의 범위 설정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 조례에는 연령대별 구분, 활동의 범위, 은둔의 지속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범위 설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의 대상인 은둔형 청·장년층의 연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설정
 - 청년의 연령은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의 정의를 수용해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의 연령과 상이하여 이들 법과의 연동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년은 노년기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연령, 즉 64세까지로 보아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설정
 - * 윤일규 의원(2019)은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사회적 외톨이 현상의 발생 시기에 대해 청소년기(13~19세), 성인 이후 청년기(20~39세), 중 장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분(김혜원 등, 2021: 35에서 재인용)

- 활동의 범위와 은둔의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은둔형 외톨이를 다음과 같이 설정
 - 다음에서 제시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거나 그러한 적이 있던 사람에 해당

- ①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②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③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④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⑤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3개월이면 고립 생활이 시작되어 굳어질 수 있으므로 은둔의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오상빈(2019b)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나, 지원시책의 수혜 범위는 좀 더 보수적인 6개월로 설정

사회조사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실태조사의 실시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전남 지역에 은둔형 외톨이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활용해볼 수 있음
 -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보건·의료’ 분야의 목록에 추가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2021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는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1,593개 조사구에 19,116가구(조사구당 1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조사를 실시(전라남도, 2021: 9)
- 실태조사는 전남 22개 시·군에 소재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가족지원센터 등의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내원할 수도 있는 민간병원으로도 설문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사회 밖으로 드러난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므로 드러나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며, 은둔형 외톨이가 비정신적병성 현상에 해당 하나 확정 진단받기 전의 조현병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음에 유의

• 표 4-1 | 전라남도 시·군별 정신의료기관 현황(2021년 12월 현재) •

구 분	정신의료기관
목포시	• 세안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 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세련신경과의원, 명정신건강의학과의원, 태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10)
여수시	•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여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여수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잘자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삼성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6)
순천시	• 순천은병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성가롤로병원, 순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종영신경정신과의원, 김량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밝은마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웰빙의원, 담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인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선요양원, 사랑샘(12)
나주시	• 빛가람병원, 밝은마음병원, 나주효사랑병원, 국립나주병원(4)
광양시	• 로템정신건강의학과의원, 허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2)
담양군	• 담양참사랑병원, 창평우리병원(2)
곡성군	• 곡성사랑병원(1)
구례군	-
고흥군	• 잘자고마음편한키다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1)
보성군	• 별교삼호병원(1)
화순군	• 보은병원, 화순고려병원, 화순성심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4)
장흥군	-
강진군	•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1)
해남군	• 해남종합병원, 해남해민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 신혜힐링타운(4)
영암군	• 영암병원(1)
무안군	• 무안병원, 성산정신요양원(2)
함평군	-
영광군	• 영광기독신하병원,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영광사회복지시설, 새롬채(4)
장성군	• 장성병원, 시일건강타운(2)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자료 :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instList.do?pagelD=www17&instDiv=A#>
(검색일: 2021.12.20.)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가족지원센터는 각각 건강증진과와 여성가족과에 연계된 중간 지원조직이므로, 실태조사 시 이들 부서와의 협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 T/F의 간사 부서로 지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관을 새롭게 설치하기보다는,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광역급 단위에는 존재하지 않고 기초에 해당하는 22개 시·군에서만 설치
 - 전담팀을 설치·운영한 이후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관을 설치
 - 전라남도에는 많은 섬이 있지만 가용 시간과 비용, 중간지원조직의 행정력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섬 지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
 - * 실태조사의 경험을 축적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조사의 범위를 섬 지역까지 점차 확대
 - * 도시지역(동 지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실태조사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병행하는 방안, 즉 아파트 거주 세대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음

2. 은둔형 청·장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인력의 양성

-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 인재 양성 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의 질 향상을 도모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담당하는 전남 내 시·군 직원에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양성 연수’를, 당사자에 대한 방문 지원 등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양성 연수’ 등을 실시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기존의 상담교육 프로그램과 연동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내 시·군 지역에 보급

- 이미 10여 년 전에 후생노동성이 개발한 <히키코모리 평가·지원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일본의 다양한 관련 보고서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교육 교재 등을 참조·활용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에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가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
 - 은둔형 외톨이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시책을 펼쳐가고 있는, 인근의 광주광역시와 연계·협력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 현재의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들이 공감하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과거의 은둔 경험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서포터로 적극 양성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각자의 상황에 적합하게 전문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은 성, 연령, 은둔의 기간, 은둔의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들 특성별로 우선과 방문 중에 어떠한 상담 방법이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유형 특성에 따라 어떠한 상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수요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의 수행을 도모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상담가가 집 밖으로 거의 외출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를 지원
 - 가정 방문을 통해 집안 분위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정서 등을 파악
 - * 특히 은둔형 외톨이 출신 서포터의 가정 방문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은둔형 외톨이의 진행 단계별로 당사자와 가족의 특징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지원 대책을 마련

· 표 4-2 | 은둔형 외톨이의 진행과 지원 과정(지원기관과의 만남 전) ·

단계 구분	특징적 경향		단계별 지원 대책
	당사자	가족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애착 결핍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착한 아이'로 지내다가 주어지는 요구와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 자존감 형성이 안 되고 불안해지며 자기표현을 잘 못함 선·후천적 발달의 어려움이 배경이 되는 경우도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에 대한 엄격하고 권위적인 태도, 가치관 강요, 과도한 간섭, 일방적 소통, 방치, 잦은 잔소리, 폭언, 폭력, 경건한 신앙 등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절대적 가치관으로 자녀의 사고와 진로를 무의식적으로 지배 부부 간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에 대한 예방 교육, 가족 간 소통 촉진 자녀의 자존감 형성과 발달 장애에 대한 교육 차이를 인정하며 경쟁보다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개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전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직장 등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왕따 등 어려움이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여 신체적·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남 학교·회사에 가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등교 거부, 대인공포, 우울감, 책임회피 행동 등을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마땅치 않은 행동을 비난하고 사회 통념·상식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며 본인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어려움 문제를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에게는 휴식, 가족에는 여유가 필요함 부모 상담 필요 당사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며 본인에게 지나치게 지시하지 말아야 함
은둔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교 거부, 학교 자퇴, 퇴사 등을 계기로 속마음과는 반대로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짐 많은 경우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차 끊게 됨 자기 부정감과 자기 합리화가 동거 부모에 대한 반발 또는 체념 본심은 자신만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통념에 따라 자녀들을 학교·사회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며 응하지 않는 자녀와 충돌 부모의 관념과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상담, 당사자에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제공 성급한 사회 복귀 시도는 피해야 함 가족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지원해줌 적절한 지원자와의 만남이 중요
은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이 지속되면서 정신적 이차 증상 발생 강박증, 과식·거식증, 인터넷·게임 중독, 공황장애, 사회불안 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를 미워하고 절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이차 증상을 보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지만 크게 효과가 없음 심리상담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여 앞길이 막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증, 조현병 증상이 있으면 정신과 대응도 필요할 수 있음 기타 이차 증상은 당사자에 대한 접근이 효과가 적고,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대화의 길'을 여는 접근이 필요
은둔 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둔 생활이 오래되면서 소속이 없고 관계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짐 삶에 대한 체념, 자포자기 경향, 부모에 대한 원망과 사랑, 포기과 집착이 혼재 자해, 자살 충동, 우울감이 지속 씻지 않고, 과식 또는 거식, 운동 부족, 밤낮 바뀐 생활로 건강이 나빠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로 부모에게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자식의 문제로 부부 간 갈등이 심해짐 부모가 자녀를 구출하는 것만이 삶의 소원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고착된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 자녀와 부모 간 소통의 길을 열어주고, 부모가 아이에 대한 통제욕구를 내려놓고, 자녀와 진지하게 소통하여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수용하며 인정하는 것이 중요

자료 : 오오쿠사 미노루(2020b, 59)의 재구성

· 표 4-3 | 은둔형 외톨이의 진행과 지원 과정(지원기관과의 만남 후) ·

단계 구분	특징적 경향		단계별 지원 대책
	당사자	가족	
지원 초기 ·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의 개입을 통한 부모의 변화를 느끼며 굳었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짐 · 또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 상담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고 은둔 상태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조금씩 생기지만 아직 겁이 많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전문가 및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를 만나 부모가 고립에서 벗어나 위안을 받음 · 자녀에 대한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그대로 인정해야 함을 알게 되지만 아직 어려워함 · 부모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그동안 고독했던 부모와 당사자 쌍방의 삶을 그대로 인정 · 당사자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소통을 매개해줌 · 쌍방에 있는 고착된 가치관을 제거하여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제시 ·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부모와 거리를 두며 생활력을 키우면서 부모의 제어 영향력을 잊게 함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내에서 지원자 및 인구의와의 작은 인간관계를 형성 · 규칙적인 개인 생활, 모임 참석 등 낮은 수준의 사회관계를 시작 · 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 스스로 '난 이래도 괜찮다'를 얻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시작된 자녀의 불안정한 걸음을 간섭하지 않고 뒤에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 · 부모 자조 모임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익힘 · 지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를 지도받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곁에서 같이 걷는 동료와 선배,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역할'이 필요 ·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고민을 옆에 두고 부모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줌
자립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면서 자존감이 향상 · 서로 돕는 협조심, 실패해도 괜찮다는 여유와 안심감, 거부를 할 수 있는 자신감, 자기 표현력을 얻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새로운 소속과 의사결정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존경으로 응원 ·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부모 스스로의 인생을 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작은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자기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 경험이 주는 의미'를 떼어내며 존재를 인정해줘야 함 · 자기만능감을 심어줌 · 당사자가 속하는 공동체 환경이 안전한 공간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함
자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되면서 생기는 욕구에 따라 취업, 창업, 학업을 시작하여 꾸준히 함 · 완벽을 추구하거나 모든 책임을 혼자 짚어지지 말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남에게 부탁하고 의뢰하고 의존할 줄 알고,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새로운 인생을 인정하고 응원하며 새로워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지 · 자녀와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하며 가볍게 또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와 가족에게 열린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면·정서면 양쪽에서 서포트 · 다시 좌절을 겪어도 언제든 다시 와서 의지하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본인과 부모가 실감하게 됨

자료 : 오오쿠사 미노루(2020b, 60)의 재구성

정책 지원 방안의 마련에 좋은 참조 자료: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의견

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은둔형 외톨이가 된 원인

- 누구나 은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둔하는 이들은 불쌍하거나 동정받을 사람도 아니고, 비난받을 사람은 더욱이 아닙니다. 충격으로 잠시 무너져 내린 것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이 또한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의 강도에 따라 은둔을 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둔하고 싶어서 은둔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은데,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은둔을 택하는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 혹은 패배자라고 인식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시선은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의 등을 떠미는 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내 어린 날에는 초라했지만 젊은 때도 초라하게 살기 싫어요.
- ‘은둔형 외톨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은둔형 외톨이로 겪었던 무기력은 아주 오랜 시간 사회와 가족의 폭력과 방치를 겪다가 나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고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해서 불안했습니다.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하는 반복되는 일상들이 허무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폭식, 게임, 인터넷 중독으로 뇌를 마비시키고 과수면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한심하게 보는 히키코모리의 모습들은 사실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고립감을 느끼니 세상에서는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1~2년이 아닌 학창 시절부터 1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박탈감과 고립감, 자괴감, 불안감 등을 느꼈습니다.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적: 인간으로서 가치 발견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 단순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여러 수익 관계가 얽혀있는 복지 사업의 수단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알지 못했던 개개인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주고, 믿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또 베풀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길 바랍니다. 진심이 아니면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3. 지원 방향과 개입 방법

-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
 -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원인에 따라 다른 도움이 필요
 - 은둔형 외톨이가 단순히 사회에 고립되어 있다기보다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심리적인 거면 상담도 좋겠지만, 외면적인 것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외면적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 은둔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단계별 지원의 필요

- 초기에는 떠먹여 주다시피 할 정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당사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가족 등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개선(신뢰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되 이 과정에서는 부모와의 지나친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등의 지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립청년(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회적 기대와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감정이 고립의 큰 요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들에게 ①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심리적) ② 부채감 없는 지원(금전적)이 있을 때 사회로의 복귀가 준비될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③ 고용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이 주어진다면 고립 당사자가 추가적 지원 없이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복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 단계 :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일자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설

•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자리

- 은둔형 외톨이는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보호자와 본인 모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 기관이나 병원에서도 위치가 애매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 그 원인이 심리적인 거면 상담도 좋겠지만, 외면적인 것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외면적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 무료 심리상담

- 무료 심리상담 등도 찾아오는 심리상담 등을 구축하여 더욱 편안한 장소에서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의 존재

- 현재는 청년 체인지업(비자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소모임에 참여하며 조금씩 사회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지지받는다고 느꼈을 때부터 마음이 아주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진심으로 지지받는다고 느꼈을 때부터 마음이 아주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여전히 성별이나 나이, 무기력하게 흘러보냈던 시간들 때문에 무시 받고 다시 무기력 구멍에 빠지긴 하지만 적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시 무기력 구멍에서 나갈 용기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청년 여가시설의 필요

- 현재는 일을 해서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지만 취업 준비 중에는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여가라도 할 수 있게 청년을 위한 도서관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노인과 어린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5. 또 다른 필요

- 사회인식 전환의 필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성공했지만 여전히 취업 과정에서 사회에서 받는 폭력들이 무섭습니다. 집 밖에 나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쓸 수 있는 말이 없고 면접 과정에서도 낙인, 차별, 혐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다 너무 늦어 버린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까진 계속 이 쳇바퀴를 돌고 돌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일자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나이 든 은둔형 외톨이가 겪는 어려움과 구조 요청
 - 나이가 어린 은둔형 외톨이는 어리기 때문에 도움받기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기도,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든 은둔형 외톨이들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회에 자리를 못 잡았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자신을 숨기고 집안에서 썩어가기만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도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더 힘듭니다. 온라인에서조차 나이를 밝히면 나이가 많은데 덜 되먹은 인간이라고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만 쓰게 됩니다. 어린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썩어들어가는 나이 든 은둔형 외톨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조기 개입의 필요
 -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다시 나갈 때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생 초기에 지원과 지지가 주어진다면 보다 빠른 사회 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정책

- 정책 대상은 집중하여 성공사례 만든 후 확대
 - 이를 악용하는 머리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상은 좁게 잡고 다양한 일상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히키코모리 선진국인 일본을 두고 건강한 복지가 끊어지지 않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가단체와 행정 부서, 법과 지원체계 필요
 - 최소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전문가분들이 모인 단체나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법과 지원체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 :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2020)에서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응답 내용을 구조화하여 정리한 것으로, 윤철경·서보람(2020: 21-24)에서 발췌

은둔형 외톨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계획 단계부터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범위 설정, 실태조사 수행 방법, 기본계획의 수립, 시책의 추진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분야, 즉 심리학, 의학, 가족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 단계별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민간단체, 관계 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조모임 결성도 독려하여 이들 주체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특히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조모임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동체로서 기능하므로 이러한 모임을 발굴 또는 결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주체들 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지원

참고문헌

광주광역시, 2021a,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2021b,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2~26)>.

김광희, 2020, "한국의 청년 실업과 히키코모리 문제: 일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와 8050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16(3): 467-480.

김기현·유민상, 2019,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이윤주·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원·조현주·김연옥·김진희·윤진화·차예란·한원건, 2021, <은둔형 외톨이: 가족, 사회, 자신을 위한 희망안내서>, 학지사.

모세중, 2020, "광주광역시 의회에 보낸 소견서"; 윤철경·서보람(2020: 6-7)에서 재인용.

박대령, 2020, "사회적 고립인(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주요 쟁점 진단," <'은둔형외톨이' 지원 방안 세미나: '은둔형외톨이' 국내의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가칭) 사회적외톨이지원연대준비모임, 08.05.

박애선, 2018, "은둔형 외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권미혁·윤일규·정춘숙, 11.27; 김혜원 등(2021: 46)에서 재인용.

박지선, 2020,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적질연구> 4(2): 19-45.

백형태·김봉년·신민섭·안동현·이영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62-270.

사이토 다마키(齋藤環), 2002, <ひきこもり救出マニュアル>, PHP研究所; 김경란·김혜경 (공역), 2012, <은둔형 외톨이: 그 이해와 치유법>, 파워북; 김혜원 등(2021: 23; 31; 33)에서 재인용.

서동미·조경은, 2018,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및 지원 사업", <의회정보회답>, 국회도서관.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지혜문학; 김혜원 등(2021: 24; 27; 31; 46)에서 재인용.

오상빈, 2019a,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오상빈, 2019b, "희망을 찾는 사람(은둔형 외톨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광주청년센터the 숲, 08.26.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솔과학.

오쿠사 미노루, 2020a, "해외의 은둔형외톨이 지원 현황: 일본을 중심으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방안 세미나: '은둔형외톨이' 국내의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가칭) 사회적외톨이지원연대준비모임, 08.05.

오쿠사 미노루, 2020b,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08.25.

오쿠사 미노루, 2021,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과 현황: 일본의 사례에서,"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서울특별시의회, 08.25.

윤일규, 2019,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9년 국정감사 자료집>; 김혜원(2021: 33; 35; 48)에서 재인용.

윤철경·서보람,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08.25.

이시형,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김혜원 등(2021: 18)에서 재인용.

임성수, 2020,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비교와 청년거버넌스 협력방안,"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08.25.

전라남도, 2021, <2021년 전라남도 사회지표>.

주상희, 2020a,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은둔형외톨이' 지원 방안 세미나: '은둔형외톨이' 국내의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가칭) 사회적외톨이지원연대준비모임, 08.05.

주상희, 2020b,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의 부모가 원하는 지원방향,"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8. 25.

청년재단,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청소년위원회,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 Stevenson, A. (ed.), 2010, "Hikikomori",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the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김광희(2020: 472)에서 재인용.
- 내閣府, 2010,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 内閣府, 2016,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内閣府, 2019,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報告書〉.
- 内閣府, 2020, 〈令和元年度子ども 若者の状況及び子ども 若者育成支援施策の実施状況〉.
- 内閣府, 2021, "内閣府におけるひきこもり関係の調査・施策について", 〈第1回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06.29.
- 足立弦也, 2019, "社会的孤立における居場所の関係性をもたらす承認機能についての考察: ひきこもり当事者・支援者へのインタビュー分析から", 〈立命館産業社会論叢〉 5(1): 273-292; 김혜원 등(2021: 380)에서 재인용.
- 池上正樹, 2016, "内閣府「ひきこもり実態調査」, 40歳以上は無視の杜撰", DIAMOND Online; 박지선(2020: 30)에서 재인용.
- 厚生労働省,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厚生労働省, 2019,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の方向性と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 〈市町村セミナー〉, 09.20.
- 厚生労働省, 2021, "ひきこもり支援等について", 〈第1回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06.29.
- 일본 나가노현 정신보건복지센터 https://www.pref.nagano.lg.jp/seishin/heisetsu/hikikomori/withdraw_config.html#mylinks (검색일: 2021.12.19.)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elis.go.kr>
- 전라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instList.do?pagelD=www17&instDiv=A#>(검색일: 2021.12.20.).
-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상황 리스트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515493.pdf>(검색일: 2021.12.05.)
-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원 추진 사업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ndex.html(검색일: 2021.12.05.)
- 히키코모리의 평가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요)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2000000-Shakaiengokyoku-Shakai/0000147786.pdf>(검색일: 2021.12.15.)

부록 1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등)

-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설문 체계

1.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대상

문항 체계	선택 지
1) 응답자 특성	
• 은둔 상태	① 현재 ② 과거
• 성	① 남성 ② 여성
•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최종 학력	① 중학교 중퇴 이하 ② 중졸 ③ 고등학교 중퇴 ④ 고졸 ⑤ 대학교 재학 ⑥ 대학교 중퇴 ⑦ 대졸 이상
• 종교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 가구원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⑥ 6명
• 거주 유형	① 혼자 거주 ②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거주 ③ 형제 자매/조부모와 거주
• 생계 책임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④ 본인 ⑤ 기타 ⑥ 배우자
• 국가 지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름
2) 은둔형 외톨이 특성	
• 평소 외출 정도	①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않았다 ②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않았다 ③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외출했다 ④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한다/외출했다
• 은둔 생활 기간	① 3개월~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⑤ 5년~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 은둔 생활의 주된 계기	① 취업에 실패해서 ②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③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④ 학업 중단이나 진학 실패 때문에 ⑤ 실직해서 ⑥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⑦ 기타
• 첫 은둔 생활 나이	①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시절) ② 만 13세~15세 이하 (중학교 시절)

문항 체계	선택지
	③ 만 16세~18세 이하 (고등학교 시절) ④ 만 19세~2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후) ⑤ 만 25세~29세 이하 ⑥ 만 30세~39세 이하 ⑦ 만 40세 이상
3) 일상생활	
(1) 일상생활 활동 및 관계	
• 평상시 많이 하는 활동	① 스마트폰 사용 ② PC 사용, 인터넷 게임 ③ 잠/수면 ④ TV 보기 ⑤ 아무 것도 안하기 ⑥ 음악 듣기 ⑦ 책읽기 ⑧ 운동 ⑨ 기타
•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	① 전혀 없다 ② 1명 ③ 2~3명
• 가족과의 관계 (현재)	①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③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안부를 주고 받는다 ④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고민을 함께 이야기한다
• 가족과의 관계 (과거)	① 가족 누구와도 소통이 없었다 ② 어머니와 잘 지냈다 ③ 형제와 잘 지냈다 ④ 아버지와 잘 지냈다
• 평소 식사 방법	①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② 가족과 함께 먹는다 ③ 혼자 방에서 먹는다 ④ 기타
• 주 식사 유형	① 가족이 준비한 집밥 ② 인스턴트 식품 ③ 배달 음식 ④ 과자나 간식거리
(2) 일상생활 어려움	
• 외로움	어렵지 않다 ~ 어렵다 (4점 척도)
•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다 ~ 어렵다 (4점 척도)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	어렵지 않다 ~ 어렵다 (4점 척도)
• 취·창업 활동 기회 마련	어렵지 않다 ~ 어렵다 (4점 척도)
• 문화·여가 활동	어렵지 않다 ~ 어렵다 (4점 척도)
(3) 심리정서적 요인	
• 원인 -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 경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원인 - 학교 다닐 때 친구나 선생님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았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원인 - 부모님이 엄격하고 간섭이 심했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원인 - 부모님으로부터 과보호를 받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원인 -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우울·불안·무기력 - 사람 만나는 것의 두려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우울·불안·무기력 -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문항 체계	선택지
• 우울·불안·무기력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우울·불안·무기력 - 매사에 흥미가 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우울·불안·무기력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우울·불안·무기력 -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충동성· 분노조절 - 결핍하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충동성· 분노조절 -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충동성· 분노조절 - 큰 소리로 격분하는 경우가 있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강박 - 사소한 것을 반복해서 확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중독·문제행동 - 자살 시도나 자해 경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중독·문제행동 -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진정 안 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중독·문제행동 -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중독·문제행동 - 인터넷게임을 하지 않으면 초조 불안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사회적 관계 - 처음 만난 사람과 금방 말을 할 자신이 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사회적 관계 - 사람 사귀는 것을 잘못하는 것을 고민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사회적 관계 -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사회적 관계 - 주변 사람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모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4) 상담 및 지원

(1) 상담

• 상황 변화를 위한 상담 경험	① 상담받은 적이 없다 ② 과거에 받았으나 지금은 받지 않는다 ③ 현재 받고 있다 ④ (과거) 받은 적이 있다
• 상담 이후 변화	① 전혀 변화 없었다 ②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③ 약간 좋아졌다 ④ 많이 좋아졌다
• 상담 변화를 위한 전문 상담받을 의향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많이 있다

문항 체계	선택지
• 전문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	①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② 내 일을 알리고 싶지 않다 ③ 상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④ 무슨 말을 들을지 불안하다 ⑤ 상담을 받으면 돈을 내야 할 것 같다 ⑥ 상담 기관이 근처에 없다 ⑦ 기타
• 과거 은둔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	① 취업해서 ② 학업 및 진학해서 ③ 취미활동을 통해 ④ 상담/심리치료를 받고 나서 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⑥ 부모님의 노력으로 ⑦ 기타
(2) 활동 욕구	
•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 이용 희망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취업 정보 제공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취업 알선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외부 취미활동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교육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지지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직업훈련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아르바이트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비슷한 처지 사람들과의 자조 모임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여행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성취감 활동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자유롭게 편하게 쉬며 놀기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 은둔 생활 당시 하고 싶었던 일	그렇지 않다 ~ 그렇다 (4점 척도)
(3) 지원	
• 은둔 생활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① 경제적 지원 ② 취업 지원 ③ 상담, 정서적 공감 등 심리적 지원 ④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⑥ 진단 및 치료 지원 ⑦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⑧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지원 ⑨ 기타
• 희망하는 도움 방식	① 가기 편한 곳에 있는 상담 시설 방문 ② 온라인 일대일 멘토 연계 ③ 집에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 ④ 장기 기숙형 프로그램 ⑤ 숙박형 소규모 단기 워크숍 ⑥ 기타 ⑦ 필요 없다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30-32; 37-101)의 개별 문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 체계와 선택지를 재구성하여, 선택지 순번 등을 포함한 설문문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 은둔형 외톨이 가족(보호자) 대상

문항 체계	선택지
1) 응답자 특성	
• 은둔 상태	① 현재 ② 과거
•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의 관계	① 부 ② 모 ③ 형제 ④ 친척
• 성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① 남성 ② 여성
• 연령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최종 학력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① 중학교 중퇴 이하 ② 중졸 ③ 고등학교 중퇴 ④ 고졸 ⑤ 대학교 재학 ⑥ 대학교 중퇴 ⑦ 대졸 이상
• 종교 여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① 있음 ② 없음
• 가구원 수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 생계 책임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④ 본인 ⑤ 기타 ⑥ 배우자
• 국가 지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름
• 거주 지역	① 동구 ② 서구 ③ 남구 ④ 북구 ⑤ 광산구
2) 은둔형 외톨이 특성	
• 평소 외출 정도	①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않았다 ②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않았다 ③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외출했다 ④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한다/외출했다
• 은둔 생활 기간	① 3개월~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3년 미만 ④ 3년~5년 미만 ⑤ 5년~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 은둔 생활의 주된 계기	① 취업에 실패해서 ②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③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④ 학업 중단이나 진학 실패 때문에 ⑤ 실직해서 ⑥ 부모님과 갈등 때문에 ⑦ 기타
• 첫 은둔 생활 나이	①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시절) ② 만 13세~15세 이하 (중학교 시절) ③ 만 16세~18세 이하 (고등학교 시절) ④ 만 19세~24세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후) ⑤ 만 25세~29세 이하 ⑥ 만 30세~39세 이하 ⑦ 만 40세 이상
3) 일상생활	
(1) 일상생활 활동 및 관계	
• 평상시 많이 하는 활동	① 스마트폰 사용 ② PC 사용, 인터넷 게임 ③ 잠/수면 ④ TV 보기 ⑤ 아무 것도 안하기 ⑥ 음악 듣기 ⑦ 책읽기 ⑧ 운동 ⑨ 기타

문항 체계	선택지
•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	① 전혀 없다 ② 1명 ③ 2~3명
• 가족과의 관계	① 가족 누구와도 소통이 없다 ② 어머니와 잘 지낸다 ③ 형제와 잘 지낸다 ④ 아버지와 잘 지낸다
• 평소 식사 방법	①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② 가족과 함께 먹는다 ③ 혼자 방에서 먹는다 ④ 기타
• 주 식사 유형	① 가족이 준비한 집밥 ② 인스턴트 식품 ③ 배달 음식 ④ 과자나 간식거리
(2) 경험 및 행동	
• 왕따 괴롭힘 경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매사에 흥미 없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자살 시도 및 자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타인 시선 불편 회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큰 소리로 격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PC·휴대폰이 없으면 불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사소한 것을 반복하여 확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 감정 표출 서투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3) 일상생활의 어려움	
• 은둔 생활 당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 은둔 생활 당사자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됨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 은둔 생활 당사자를 돌보느라 개인적 시간이 없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 은둔 생활 당사자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음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 은둔 생활 당사자의 생계 책임으로 인한 어려움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문항 체계	선택지
4) 상담 및 지원	
(1) 상담	
• 상황 변화를 위한 상담 경험	① 상담 받은 적 없다 ② 상담 받은 적 있다
• 상담 이후 변화	① 전혀 변화 없었다 ②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③ 약간 좋아졌다 ④ 많이 좋아졌다
•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변화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부분	① 취업 및 직업 훈련을 권유했다 ②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해 주었다 ③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 ④ 상담센터 등 상담 서비스 기관을 찾아갔다 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⑥ 상담 전문가의 방문 상담을 의뢰했다 ⑦ 재가 은둔 생활인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 자문 등을 받았다 ⑧ 기타
(2) 지원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① 상담, 정서적 공감 등 심리적 지원 ② 경제적 지원 ③ 진단 및 치료 지원 ④ 취업 지원 ⑤ 취미활동 등 문화적 지원 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⑦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지원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② 외부활동을 위한 취미, 문화예술 활동 지원 ③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상담 서비스 ④ 자녀의 생활과 유사한 친구들의 모임 알선
•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① 자녀로 인해 받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 ② 은둔형 외톨이 자녀 이해 교육 프로그램 ③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부모들을 위한 집단상담 ④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부모들과 만나는 자조모임

자료 : 광주광역시(2021a: 33-35; 102-132)의 개별 문항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 체계와 선택지를 재구성하여, 선택지 순번 등을 포함한 설문문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3. 심층 면접 질문지

1) 은둔 생활을 하게 된 시점과 계기

2) 은둔 생활이 지속된 기간

3) 은둔 생활 이전의 삶

4)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5)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

6)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욕구

7)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부록 3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설문지 (청년재단, 2020)

1. 청년용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선다형 질문지와 인터뷰 형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부호화 또는 전사 되어 통계 처리됩니다. 옳고 그름의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이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설문에 응하실 경우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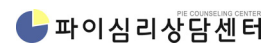
이 설문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될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녹음에 대한 내용

- 1) 녹음된 내용은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 2)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4개월 내에 폐기됩니다.

* 위의 설문 참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2019. . . . 서명 _____



* 인적사항

- 1. 거주지 : _____ 시
- 2. 성별 : () 남자 () 여자
- 3.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4. 형제 : 형제 수 (명)
출생순위 () 1. 맏이 2. 중간 3. 막내 4. 외동
5. 학력
()초등학교 학업 중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학업 중단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학업 중단 ()고등학교 졸업
()대학 학업 중단 ()대학 졸업 이상
6. 전학, 이사 경험 : 시기(), 횟수(), 이유()
7. 부모의 결혼 상태
()결혼 및 동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8. 부모의 취업 여부
아버지 : ()정규직 ()임시직(비정규직) ()무직
어머니 : ()정규직 ()임시직(비정규직) ()무직
9.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가능)
()부모님 ()조부모 ()친척
()친구와 동거 ()혼자 생활 ()기타 : _____
10. 가정의 경제 상황
()상 ()중 ()하
11. 경제활동 혹은 알바 경험
()없음 ()시간제 3개월 미만 ()시간제 3개월 이상
()전일제 3개월 미만 ()전일제 3개월 이상 ()기타 : _____

I. 다음은 평소의 생활이나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나는 평소에 _____”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2. 내가 가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4. 학교나 사회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5.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6.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7. 사람들을 좀처럼 믿기 어렵다.				

“나는 평소에 _____ ”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9. 나는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지낸다.				
10. 나는 남들에 비해 내세울 만 한 특출한 능력이 있다.				
11. 성적이나 취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12. 밖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다.				
13.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				
14.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15.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6. 내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17. 낮잠을 많이 잔다.				
18. 나는 아무 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19.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왠지 두렵다.				
20. 앞으로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21.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다.				
22. 앞으로 이성 관계나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23.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24. 내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다.				
25.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26.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많이 한다.				
27. 모임이나 단체 활동 시 같이 지낼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된다.				
28.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II. 다음은 지난 1주일 사이의 느낌이나 경험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지난 7일 동안 나는 _____ ”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머리가 아팠다.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었다.				
3.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났다.				
5. 성욕이 감퇴되었다.				
6.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였다.				
7. 누가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 같았다.				

“지난 7일 동안 나는 _____ ”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9. 기억력이 좋지 않았다.				
10.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11.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				
12. 가슴이나 심장이 아팠다.				
1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려웠다.				
14.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 들었다.				
15.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6.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렸다.				
17. 몸이나 마음이 떨렸다.				
18.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19. 입맛이 없었다.				
20. 울기를 잘했다.				
21.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러웠다.				
22.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23. 별 이유 없이 울화가 치밀었다.				
24.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밀었다.				
25.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려웠다.				
26. 자책을 잘했다.				
27. 허리가 아팠다.				
28.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기분이었다.				
29. 외로웠다.				
30. 기분이 울적했다.				
31. 매사에 걱정이 많았다.				
3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었다.				
33.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34. 쉽게 기분이 상했다.				
35.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았다.				
3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하는 것 같았다.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38.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했다.				
39. 심장이 마구 뛰었다.				
40. 구역질이 나거나 토했다.				
41.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았다.				

“지난 7일 동안 나는 _____ ”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42.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었다.				
43.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속덕거리는 것 같았다.				
44. 잠들기가 어려웠다.				
45.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46. 결단력이 부족했다.				
47.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가 두려웠다.				
48. 숨쉬기가 거북했다.				
49. 목이 화끈거리거나 찢 때가 있었다.				
50. 어떤 물건이나 장소 혹은 행위가 겁이 나서 피해야 했다.				
51.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다.				
52.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했다.				
53.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았다.				
54.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았다.				
55.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56.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었다.				
57. 긴장이 됐다.				
58. 팔다리가 묵직했다.				
59.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60. 과식했다.				
61.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졌다.				
62.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았다.				
63.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64. 새벽에 일찍 잠이 깼다.				
65. 만지고 샘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66. 잠을 설쳤다.				
67.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68.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었다.				
69.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됐다.				
70. 마트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했다.				
71. 매사가 힘들었다.				
7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었다.				
7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했다.				
74.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잘 다뤘다.				
7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무서웠다.				

“지난 7일 동안 나는 _____ ”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76.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77.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꼈다.				
78.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79.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80.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꼈다.				
81.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졌다.				
82.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까 봐 걱정했다.				
83.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았다.				
84. 성 문제로 고민했다.				
85.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다.				
86. 무슨 일이든 조금해서 안절부절못했다.				
87. 내 몸 어딘가가 병들었다고 생각했다.				
88.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89.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다.				
90. 내 마음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III. 다음은 내가 부모님에게 느껴왔던 점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내 부모님은 _____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 주었다.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8.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9.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0.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11.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겼다.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내 부모님은 _____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셨다.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6.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17.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었다.					
18. 나와 가끔 이야기하였다.					
19. 부모님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20.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겼다.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다.					
23. 나를 과잉보호하였다.					
24. 나를 칭찬해 주었다.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IV. 다음은 생활 속에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편안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나요?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는 것은 제외)

()없다 () 1명 () 2~3명 () 4명 이상

** 있다면 누구? _____

2.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 방문해서 도움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없다 ()있다 있다면 기간: _____ 복용 중인 약: _____

3. 식사 및 수면상태는 어떠한가요? (식사 횟수 및 방법, 취침/기상시간, 잠의 질)

4. 방(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중복 체크 가능)

()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 영화(TV) () 음악 감상 () 책읽기

() 뉴스검색 () 기타: _____

5. 경제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 한달에 필요한 액수? _____ 원

- 용도? _____

- 조달방법? () 가족 및 부모 () 알바 () 직업 () 기타: _____

6. 고립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7. 주로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이유는? (중요한 순서대로 중복 체크 가능)

- () 신체나 용모에 관련된 이유로
- () 학업능력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 ()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 () 학교/사회생활이 부담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서
- () 친구들과로부터 당하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이 싫어서
- ()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질병 등)
- () 원래 비사교적이고 내향적이어서
- ()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8. 현재의 나를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 신체적 어려움 : _____
- 정신적 어려움 : _____
- 경제적 어려움 : _____
- 관계적 어려움 : _____

9.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없다 () 있다 ()

- 시기 : _____
- 방법 : _____
- 얼마나 (빈도) : _____

10. 타인을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한 경험이 있나요? 없다 () 있다 ()

- 언어적 : _____
- 신체적 : _____
- 얼마나 (빈도) : _____

11. 주로 혼자 지내는 것으로 인해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요?

12. 주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3. 혼자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 주변 사람의 어떤 도움 : _____
-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 _____

14. 과거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2. 부모용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선다형 질문지와 인터뷰 형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부호화 또는 전자 되어 통계 처리됩니다. 옳고 그름의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이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설문에 응하실 경우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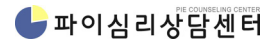
이 설문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될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녹음에 대한 내용

- 1) 녹음된 내용은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 2)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4개월 내에 폐기됩니다.

* 위의 설문 참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2019. . . 서명 _____



* 인적사항

- 1. 자녀와의 관계 : ()부 ()모
- 2.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 3. 학력
 -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이상 졸업
- 4. 결혼 상태
 - ()결혼 및 동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 5. 직업
 -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 ()판매 및 서비스
 - ()직업 없음 ()기타 : _____

6. 가정의 경제 상황

()상 ()중 ()하

7. 자녀 수 (총 _____ 명, _____ 남 _____ 여) 대상 자녀 순위 : _____ 째

8. 가족 사항

관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동거 여부	대상 자녀와 친밀 정도					기타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매우 멀다 ()	멀다 ()	보통 ()	가깝다 ()	매우 가깝다 ()	

I. 다음은 부모로서 대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신 내용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나는 자녀에게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2. 자녀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 자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 주었다.					
4. 자녀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5. 자녀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6. 자녀에게 다정다감했다.					
7. 자녀의 일은 자녀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8. 자녀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9.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0. 자녀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나는 자녀에게 _____ ”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겼다.					
12. 자녀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13. 자녀를 어린애 취급했다.					
14. 자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15. 자녀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6. 자녀가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했다.					
17. 자녀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었다.					
18. 자녀와 가끔 이야기했다.					
19. 부모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20. 자녀가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느끼게 했다.					
21. 자녀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22. 자녀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다.					
23. 자녀를 과잉보호했다.					
24. 자녀를 칭찬해 주었다.					
25. 자녀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II. 다음은 생활 속에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편안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자녀가 고립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고립생활을 시작한 계기와 지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중복 체크 가능)
 - () 신체나 용모에 관련된 이유로
 - () 학업능력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 ()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 () 학교/사회생활이 부담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서
 - ()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이 싫어서
 - ()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질병 등)
 - () 원래 비사교적이고 내향적이어서
 - ()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 자녀는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요?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4.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나요? 지금은 어떤지요?
5.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이 자녀로 인해 내가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요?
- 신체적 어려움 : _____
- 정신적 어려움 : _____
- 경제적 어려움 : _____
- 관계적 어려움 : _____
7. 자녀의 고립생활로 인해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8. 자녀의 고립생활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9. 내가 보는 자녀의 미래는 어떠한가요? (긍정적 기대, 예상되는 어려움과 걱정 등)
10. 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이길 원하나요?
11.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청년들의 고립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2. 현재 자녀와 같은 고립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 주변 사람들 : _____
- 정책 또는 프로그램 : _____

3. 면담자의 Post Review

1) 인상 착의 - 첫인상

2) 위생 상태

3) 면담 태도

4)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문

5) 쉽게 대답한 질문

6) 은둔형 외톨이에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

7) 면담자의 전체적 느낌

부록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단체 수행 설문조사지

1. 부모 대상(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2020) ▣

- 1) 협회를 알게 된 계기
 - ① 부모, 가족친지 소개로
 - ② 친구, 선배, 지인 소개로
 - ③ 지역주민센터
 - ④ 기관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 ⑤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 2) 거주지
 - ① 서울시
 - ② 인천시
 - ③ 경기도
- 3) 응답자(부모)의 연령대
 - ① 40대
 - ② 50대
 - ③ 60대
 - ④ 70대 이상
- 4) 은둔 자녀의 성별
 - ① 남
 - ② 여
- 5) 자녀의 연령대 (or 당사자)
 - ① 15세 미만
 - ② 만 15~19세
 - ③ 만 20~24세
 - ④ 만 25~29세
 - ⑤ 만 30~39세
 - ⑥ 만 40세 이상
- 6) 자녀의 처음 은둔 시작 시기
 - ① 15세 미만
 - ② 만 15~19세
 - ③ 만 20~24세
 - ④ 만 25~29세
 - ⑤ 만 30~39세
- 7) 처음 고립하게 된 계기
 - ① 왕따를 당하거나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서
 - ② 학업 중단이나 대학입시 실패
 - 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④ 정확한 원인 모른다
 - ⑤ 게으름, 무기력
 - ⑥ ADHD
 - ⑦ 외모 때문에 (여드름)
 - ⑧ 자신감 결여
 - ⑨ 부모와 대화 문제

▣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주상희(2020a)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선택지 순번 등을 포함한 설문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8) 자녀의 은둔 기간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2년 미만 ④ 2~3년 미만 ⑤ 3~5년 미만
- ⑥ 5~10년 미만 ⑦ 10년 이상

9) 은둔 자녀의 주활동

- ① 인터넷 게임 및 PC활용 ② 수면 ③ 음악 ④ 아무 것도 안함 ⑤ 모름 ⑥ 헬스 ⑦ 스마트폰
- ⑧ 인터넷 서칭, 쇼핑, SNS ⑨ 운동·게임·먹방

10) 은둔 자녀의 외부활동 범위와 빈도수

- ① 운동 및 산책 주 2회 이상 ② 친구, 편의점, 피시방 월 1회 ③ 외출 전혀 안함
- ④ 친구 및 지인 만남 전혀 안함 ⑤ 가족과 산책, 마트, 외식 2주에 1회 ⑥ 상담
- ⑦ 꼭 필요한 행사나 외부 취미활동 시 ⑧ 가족과 외출(여행, 나들이) 2주에 1회
- ⑨ 외출을 하지 않으며 필요 시 외출 ⑩ 외출×병원, 편의점 등은 혼자 감
- ⑪ 본인이 꼭 나가야 한다면 외출 ⑫ 1주일에 1번 상담 시
- ⑬ 평균 한 달에 2번 상담, 기타 수업 1번 ⑭ 친구들과 PC방

11) 은둔 자녀의 식생활

- ① 집밥을 먹는다 ② 식사는 주로 혼자 방에서 먹는다 ③ 식사는 주로 가족과 먹는다
- ④ 식사는 거의 배달음식이다 ⑤ 주로 인스턴트를 먹는다 ⑥ 컨디션에 따라 위 조항 모두 포함
- ⑦ 배달 음식을 먹으나 집밥 선호 ⑧ 다이어트로 인해 혼자 과자나 음식 섭취
- ⑨ 저녁만 함께 먹음 ⑩ 시간대가 안 맞아 배달 음식을 먹지만 시간이 맞으면 함께 먹음
- ⑪ 가족이 방에 들어가면 혼자 나와 먹음

12) 은둔 자녀의 건강 상태

- ① 우울증 ② 과체중 ③ 저체중 ④ 건강염려증이거나 결벽증이 있다 ⑤ 회복기로 건강하다
- ⑥ 회복기라기보다 잘 먹고 건강함 ⑦ 대인기피증 ⑧ 복합적임
- ⑨ 저체중과 체형 문제, 탈모, 골다공증 우려 ⑩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부족
- ⑪ 결벽증

13) 은둔 자녀의 소득 및 주거 상태

- ① 소득이 전혀 없다 ② 간간이 알바를 한다 ③ 가족과 함께 거주
- ④ 따로 독립해서 있지만 소득이 없다 ⑤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14) 가족과의 관계

- ① 부와 잘 지낸다 ② 모와 잘 지낸다 ③ 부모와 대화를 안 한다 ④ 형제와 대화를 한다
- ⑤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다 ⑥ 가족과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 ⑦ 엄마와 주기적 갈등 존재
- ⑧ 가족과 보통이다 ⑨ 가족과 소통은 하지만 잘 못 지냄 ⑩ 약간 소통 ⑪ 부모와 대화를 잘함

15) 은둔 자녀에 대한 대처 방법

- ① 취업 및 직업훈련 권유 ② 개인 상담 및 정신과 상담 ③ 정신과 등 의료기관 진료
- ④ 병원 등 약을 복용하고 있다 ⑤ 자조모임을 나가고 있다 ⑥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 ⑦ 개인상담 ⑧ 가족과 잘 지내며 사회활동 찾는 중 ⑨ 취미생활 하려고 노력 중
- ⑩ 방문상담 주 1회 ⑪ 상담 및 진료 공동생활하였지만 적응 불가 ⑫ 믿고 격려

16) 부모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는?

- ① 고립과 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② 자녀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
- ③ 유사 문제를 겪는 부모 자조모임 ④ 유사 문제를 겪는 부모 집단상담
- ⑤ 은둔형 외톨이 친구 모임 주최 ⑥ 집으로 방문 상담 ⑦ 은둔이 활동공간 필요
- ⑧ 자녀 이해 프로그램, 장기적 자조모임
- ⑨ 당사자 서포터즈, 부모 서포터즈, 부모와 자식 간 언어 심리상담 프로그램

2. 당사자 대상(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 2020) ▣

1) 당신은 과거 또는 현재에 6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주로 집 안에서 지내지만 취미활동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한 적이 있다)
- ②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한 적이 있다)
- ③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많은 적이 있다)
- ④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많은 적이 있다)
- ⑤ 위 4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2) 그렇게 생활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 중단이나 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 ④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⑦ 원래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⑧ 군 입대 날짜를 기다리다가

3-1) 다음 용어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은둔형 외톨이 ② 사회적 외톨이 ③ 사회적 고립인 ④ 저활력인 ⑤ 생각과다인
- ⑥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조합어 ⑦ 밖으로 나온 사람 ⑧ 히키코모리

▣ 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일 때의 중간결과를 발표한 윤철경·서보람(2020: 17-20)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선택지 순번 등을 포함한 설문문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3-2)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아야 할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은둔하고 있는 사람 ② 비구직 무업자 ③ 심리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
- ④ 활동을 하지만 은둔 가능 경험이나 성향이 있는 사람 ⑤ 고령의 은둔형 외톨이

3-3)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아야 할 연령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 가능)

- ① 연령 제한 없이 ② 청소년 (9~24세) ③ 청년 (15~34세) ④ 35세 이상 성인

3-4) 외출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이었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집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마음이 맞는 사람
- ②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식과 정보
- ③ 자유롭게 가서 재미있게 편하게 쉬며 놀 수 있는 장소 ④ 용돈 등 경제적 지원
- ⑤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 ⑥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 ⑦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인식

3-5)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면 가장 도움을 받기 쉬울까요?

- ① 온라인 일대일 멘토 지정, 상담과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② 집에 찾아오는 상담자 지정, 상담과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③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④ 거리와 상관없이 숙박을 겸한 소규모 워크숍을 통해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⑤ 온/오프라인 지속적 1:1 관리 서비스

부록 5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설문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1. 은둔형 외톨이 관련 문항

문61)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61-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 | |
|-----------------|------------------|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

문61-2)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_____) |

■ 본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중·고등학생(만 15~18세)용과 청년(만 19~39세)용 등 두 유형의 설문지로 구성되며,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한 설문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음

2.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 심층 면접 질문지

I. 은둔형 외톨이 실태

- 1) 만나보신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대와 은둔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2) 그들은 은둔생활을 할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3) 그들이 은둔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어려움)는 무엇입니까?
또한, 가족들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까?
* 개인적 요인(성격특성)/환경적 요인(가정환경 및 대인관계 문제 등) 또는 특정 사건 경험 여부(학교폭력, 따돌림, 학대, 부모님의 이혼 또는 사망 등)
- 4)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로는 무엇이며, 그들이 은둔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둔형 외톨이의 위험 요인) 또한, 은둔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나요?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 요인)

II.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 1) 은둔형 외톨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2)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
- 3)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 민간 등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정책이나 지원 방안 등에서 개선되어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III. 기관에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연구 등에 대한 문의

- 1) 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연구내용 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사업(또는 프로그램, 연구, 상담 등)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3) 귀 기관에서 진행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은둔형 외톨이나 그들의 가족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또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호소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요?
- 4) 귀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한 업무담당자로서, 은둔형 외톨이들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어려운 점이나 문제, 한계점 등은 무엇인지요? 또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록 6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설문지(백형태 등, 2011)

■ 부모 작성 자녀 은둔 평가 척도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자녀에게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 하나를 골라 해당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약간) 그렇다	자주 (상당히) 그렇다	항상 (매우) 그렇다
01. 우리 아이는 식구들과 따로 식사를 한다.				
02.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03.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04. 매일 한 번 이상 집 밖으로 외출한다(등교 포함).				
05.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지낸다.				
06.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				
07. 매사에 흥미가 없어 보인다.				
08.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회피한다.				
09. 낮잠을 많이 잔다.				
10. 학교 가기를 거부한다.				
11. 학교에 지각한다.				
12. 걸핏하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른다.				
13. 타인의 시선을 불편해하고 회피한다.				
14. 남들이 자신을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한다.				
15.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편해한다.				
16. 가능한 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한다.				
17. 주위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18.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19. 친구들이 괴롭혀도 대항하지 못한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약간) 그렇다	자주 (상당히) 그렇다	항상 (매우) 그렇다
20. 학교생활에 대해 걱정한다.				
21.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인터넷이나 게임에만 몰두한다.				
22.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23. 학교에서 점심을 혼자 먹는다.				
24. 단체 활동이나 캠프, 소풍 등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25. 만나는 친구가 한 두 명 있다.				
26.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27. 또래들 간에 유행하는 옷이나 악세사리에 관심을 가진다.				
28.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즐겨본다.				
29.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있다.				
30.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는 늘 혼자이다.				
31. 용돈을 쓰지 않는다.				
32.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을 번 적이 있다.				
33.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적이 있다.				
34. 방문을 걸어 잠근다.				
35. 자기 방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36. 자신의 외모나 체취에 대해 고민한다.				

부록 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지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1.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국무총리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 청소년 정책 및 상담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 여러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게 될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모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 9월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지○○, 양○○, 김○○, 이○○, 홍○○

※ 문의사항: 홍○○ 02-2253-****, *****@kyci.or.kr

1. 다음 문장들은 개개인의 성격과 특징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읽고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표시해 주십시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소의 자신을 잘 나타내는 쪽으로 쉽고 편안하게 표시하세요.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손찌검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4	고함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과격하게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를 비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빛이 사나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10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소리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손을 오랫동안 씻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손을 자주 씻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결벽증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화장실에 자주 간다.	①	②	③	④	⑤
17	가족들이 없을 때나 안 볼 때 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가족 중에 대화가 안되는 상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가족들이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절망스럽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자살하고 싶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자신에 대해 비관적으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과거의 일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생활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머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방이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물건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목욕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린다.	①	②	③	④	⑤
33	이유 없이 웃는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	하루 종일 잠을 잔다.	①	②	③	④	⑤
35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7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8	친구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9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2	무기력하다.	①	②	③	④	⑤
43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45	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6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47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①	②	③	④	⑤
48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①	②	③	④	⑤
49	두려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0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①	②	③	④	⑤
51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4	낮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5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6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57	다른 사람이 원가를 잘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8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59	친구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60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1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2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의 의견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과 다를 때, 대화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64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65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괴롭힐 때,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66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 미리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67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68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인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9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70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말이나 감정표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알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⑤
71	이성과 만남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2	이성에게 칭찬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3	사람들과 운동이나 게임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한다.	①	②	③	④	⑤
74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75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귈다.	①	②	③	④	⑤
76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7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8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게 관해서 속덕거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9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0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1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3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4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5	수줍어 한다.	①	②	③	④	⑤
86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87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88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9	공부나 일이 잘 안될 때에는 곧 집어치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0	조그마한 실수에도 당황하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1	기분이 쉽게 자주 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2	상대방이 아는 체 하기 전에는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3	창피 당한 것을 잘 잊지 못하며 쉽게 상처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4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95	누군가에게 비난받으며 몹시 속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96	신경이 날카롭고 민감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7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

다음 문항들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접하는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은 잘 읽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바를 적절하게 나타냈으면 “예”,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익숙치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2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려야 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한다.					
3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쉽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4	특별히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5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종종 당황함을 느낀다.					
6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대개 차분하고 편안하다.					
7	이성에게 말을 걸 때 대체로 마음이 편하다.					
8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하려 한다.					
9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자주 응한다.					
10	우연하게 남녀가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종종 예민해지고 긴장된다.					
11	사람을 잘 알게 되기 전까지는 같이 있는 것이 긴장된다.					
12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보통 편안함을 느낀다.					
13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14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보통 마음이 편치 않다.					
15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체로 편안함을 느낀다.					
16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 긴장하고 마음을 즐긴다.					
17	방에 낯선 사람이 꼭 차 있어도 거리낌없이 들어갈 수 있다.					
18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					
19	윗사람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며 거리낌없이 응한다.					
20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신경이 예민해진다.					

-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
 조부모
 친척
 친구와 동거
 혼자 생활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가정의 총 월수입 ()
 1. 100만 원 미만 2. 100-200만 원 3. 200-300만 원 4. 300-400만 원 5. 400만 원 이상
- 가장 오랫동안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_____ 년 _____ 월

2.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심층면접 질문지

면접자 성명: _____

◎ 가정생활

1.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2.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에게 이야기합니까?
3. 부모님과 사이는 어떻습니까?
4. 부모님은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5.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6. 가족 중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 개인적 특징

1. ○○이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2.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3. 어떤 경우에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4. ○○이는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5. ○○이는 무엇을 잘합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 또래관계

1. 친한 친구는 몇 명이 있나요?
2. 친구와 만나다면 주로 무엇을 하나요?
3. 여러 친구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 학교생활

1. 처음 학교를 안 가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몇 학년, 몇 살 때)
2. 처음 학교를 안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왕따, 가족과의 갈등, 교사와의 갈등 등)
3. 학교를 안 가게 되고 친구들과 잘 만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 개인생활

1.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서 일상 스케줄을 얘기해 주세요.)
2.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 2-1.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에 많이 하나요?
 - 2-2. 어떤 경우에 특히 더 많이 하나요?
 - 2-3. 어떤 기분이 드나요?
 - 2-4. 나중에 어떤 기분이 드나요?
 - 2-5. 어떤 경우에 그만 둘 수 있나요?
3. 밤과 낮 중에서 어느 시간에 활동을 더 많이 하나요?
4. 하루에 몇 끼니를 챙겨 먹나요?
5.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6. 자신이 주로 집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개인적 노력

1.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가족, 친구 등)
2.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집 밖에 나가는 일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집 밖에 나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5. 특별히 집 밖에 나가려는 생각을 언제 해 봤나요?
6. 주변에 노군가가 도와준다면 집 밖에 나가는 일에 도전해 보겠나요?
7.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면 집 밖에 나가는 일에 도전해 보겠나요?

피면접자 성명: _____

피면접자 성명: _____

피면접자 성명: _____

3.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2	두려운 느낌이 든다.					
3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4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5	긴장이 된다.					
6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7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8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9	친구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잘 듣는다.					
10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준다.					
11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다.					
12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한다.					
13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14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15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번호	질 문 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17	목욕을 하지 않는다.					
18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19	가족들이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0	창피 당한 것을 잘 잊지 못하며 쉽게 상처를 받는다.					
21	누군가에게 비난받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22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23	조그마한 실수에도 당황하는 때가 많다.					
24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25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26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27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28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					
29	고함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					
30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31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32	과격하게 자기주장을 한다.					

- 나는 3개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 나는 가끔 학교를 안 가고 일도 하지 않는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 현재 친한 친구나 같이 노는 친구가 없거나 한명이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 나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예 _____ 아니오 _____

부록 8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
(청소년위원회, 2005)

1. 일반학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적응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맞고 틀린 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끝까지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남정신과

♣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을 잘 표현한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십시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2. 내가 가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3. 나는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4. 학교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5. 혼자 있는게 맘이 편하다				
6.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 혼자있는 것이 편하다				
7.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8. 나는 우리 반에서 인기가 있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선생님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10. 사람들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11.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12. 나는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지낸다				
13. 나는 남들에 비해 내세울만한 특출한 능력이 있다				
14. 학교 공부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성적과 취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16. 밖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다				
17.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				
18.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19. 학교에 가는 게 재미없다				
20.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21. 내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22. 낮잠을 많이 잔다				
23. 나는 아무 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24.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왠지 두렵다				
25. 앞으로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26.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다				
27.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지낸다				
28. 앞으로 이성관계나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29.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럽다				
30.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31. 못난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다				
32. 선생님은 다른 친구에 비해 나를 차별대우하는 것 같다				
33.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34.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많이 한다				
35. 소풍이나 단체 활동 시 같이 지낼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된다				
36.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37.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38. 학교를 떠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7.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걱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
- 없다
 -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할 것 같다
 - 이성관계나 결혼생활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
 -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8. 학교에 등교하거나 특정한 사회 활동을 위해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건구매를 위해 상점에 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외출은 제외)
- 그렇다 ⇒ 9번 문항으로 가시오.
 - 아니다 ⇒ 5쪽으로 가시오.
9. 언제 처음으로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습니까?
- 중학교 이전
 - 고등학교
10. 가장 오랫동안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1. 가장 최근에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낸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12.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중복 체크 가능)
- 즐겁고 편안했다
 - 외로움과 고독감
 - 별 느낌이 없었다 (무감각)
 - 미래에 대한 불안
 - 무기력감
 - 자존심의 손상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문제라고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14. 등교나 외출하지 않고 지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정신과나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
 - 부모님이나 가족과 의논
 - 전문상담원과 인터넷 상담
 - 친구와 의논
 - 전문상담원과 전화 상담
 - 인터넷 채팅
 - 담임이나 상담교사의 도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다음의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 혹은 지난 6개월 내에 자신이 나타낸 행동을,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 곳에는 가능한 한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0=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 알레르기가 있다.	0	1	2
3. 말다툼을 자주 한다.	0	1	2
4. 천식이 있다.	0	1	2
5.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한다.	0	1	2
6. 동물을 좋아한다.	0	1	2
7. 사랑을 많이 한다.	0	1	2
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힘들다.	0	1	2
9. 어떤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안된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10.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0	1	2
11.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0	1	2
12. 외롭다고 느낀다.	0	1	2
13. 혼동이 잘되고 갈피를 못 잡겠다.	0	1	2
14. 잘 운다.	0	1	2
15. 나는 꽤 정직하다.	0	1	2
16. 남에게 못되게 군다.	0	1	2
17. 공상을 많이 한다.	0	1	2
18.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19.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0	1	2
20. 내 물건을 부순다.	0	1	2
2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22.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0	1	2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24. 잘 먹지 않는 편이다.	0	1	2
25.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0	1	2
26.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0	1	2
27. 다른 사람에게 샘을 잘 낸다.	0	1	2
28.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0	1	2
29.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30. 학교 가는 것이 겁난다.	0	1	2
31.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0	1	2
32.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	1	2
3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0	1	2
34.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0	1	2

35.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0	1	2
36. 나는 사고로 잘 다친다.	0	1	2
37.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0	1	2
39.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40. 환청: 남에게 안들리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41. 생각해 보지도 않고 행동한다.	0	1	2
42.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0	1	2
44. 손톱을 깨문다.	0	1	2
45.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0	1	2
46. 내 몸 일부가 움찔거리거나 신경질적인 몸짓을 한다(눈깜박임, 안면 씩씩거림 등).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47. 악몽을 꾀다.	0	1	2
48.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0	1	2
49. 어떤 일은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0	1	2
50.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0	1	2
51. 어지럼증이 있다.	0	1	2
52.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53.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	1	2
54.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0	1	2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0	1	2
56.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a. 몸이 쭈시고 아프다.	0	1	2
b. 두통	0	1	2
c. 메스꺼움	0	1	2
d. 시력문제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e. 발진 혹은 기타 피부문제	0	1	2
f.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g. 구토	0	1	2
h. 기타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58. 코를 후비거나 피부나 신체의 다른 부분을 뜯는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59. 나는 상당히 불임성이 있다.	0	1	2
60.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 좋아한다.	0	1	2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0	1	2
62.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0	1	2
63. 내 또래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64.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66. 똑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한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67. 가출한 적이 있다.	0	1	2
68. 고함을 많이 지른다.	0	1	2
69.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0	1	2
70. 환시: 남들에게 안 보이는 것을 나는 볼 때가 있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71. 나의 생각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쉽게 무안해 한다.	0	1	2
72. 불을 지른다.	0	1	2
73. 손재주가 있는 편이다.	0	1	2
74. 으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0	1	2
75. 수줍어 한다.	0	1	2
76.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0	1	2
77.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많이 잔다(낮이나 밤에).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78. 상상력이 풍부하다.	0	1	2
79. 나는 발음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80. 내 권리는 지킨다.	0	1	2
81. 우리집의 물건을 훔친다.	0	1	2
82. 우리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0	1	2
83. 필요없는 물건을 모아 둔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84.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85. 남들이 알면 이상하다고 여길 생각을 한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86. 고집이 세다.	0	1	2
87.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88.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0	1	2
89. 나는 의심이 많다.	0	1	2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9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92. 남들을 웃기기 좋아한다.	0	1	2
93.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94. 남을 잘 놀린다.	0	1	2
95. 나는 성미가 급하다.	0	1	2
96.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0	1	2
97.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0	1	2
98. 남들을 돕기를 좋아한다.	0	1	2
99. 청결, 정돈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0	1	2
100. 짐을 잔 못잔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101.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0	1	2

102. 기운이 별로 없다.	0	1	2
103.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0	1	2
104.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0	1	2
105.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 이외의 약물을 사용한다. 구체적 내용: _____	0	1	2
106.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려 애쓴다.	0	1	2
107. 좋은 농담하는 것을 즐긴다.	0	1	2
108. 나의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0	1	2
109. 힘이 닿는 한 남들을 도우려 노력한다.	0	1	2
110. (남자인 경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한다. (여자인 경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한다.	0	1	2
111.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0	1	2
112. 나는 걱정이 많다.	0	1	2
113. 여기에 언급되어있지 않더라도 당신이 가진 다른 문제가 있다면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0	1	2

♣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을 잘 표현한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할 때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2. 감정표현을 보다 솔직하고 용기있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편이다.				
3.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4. 내가 화를 내거나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주변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걱정된다.				
5.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직접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면 나를 안좋은 사람으로 볼까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편이다.				
6. 주위사람(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를 약하고 너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차마 그러지를 못한다.				
7. 화를 내고나면 그 사실로 인해 오랫동안 내가 괴롭다.				
8. 막상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면 오히려 죄책감이 든다.				
9.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오히려 내가 상처를 입을까 두렵다.				
10. 내가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괴롭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11.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을 해본다.				

문항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속에 담긴 동기나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13. 대화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14.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알기 위해 그 말속에 숨은 뜻을 생각해본다.				
15. 내가 하는 말속에는 표면적인 내용 이상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16.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17. 사람들은 내가 말한 내용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18. 대화할 때 내가 하는 말속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다.				
19. 슬프고 울적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위사람에게 부담만 준다.				
20.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면 주위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21. 초조한 모습으로 불안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폐만 끼치게 된다.				
22. 어떤 경우든지 화가 나더라도 그저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것이 상책이다.				
23. 가정이나 학교에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24.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5. 내가 느끼는 기분을 조절하는 일은 가정이나 학교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				
26. 나의 기분을 느낀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27. 자신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주위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우리는 늘 함께 한다는 일체감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주위사람에게 즐거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에 적어 주십시오. 무기명이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년월일: 년 월
- 성별 ()남자 ()여자
- 지역 (____시)
- 학년 ()고1 ()고2 ()고3
- 형제관계 : 형제의 수 (명)
 출생순위 () 1. 맏이 2. 중간 3. 막내 4. 외동
-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및 동거 ()별거 ()이혼 ()사별 ()재혼

■ 부모의 취업여부

- | | |
|---------------|---------------|
| 아버지 | 어머니 |
| () 정규직 | () 정규직 |
| () 임시직(비정규직) | () 임시직(비정규직) |
| () 무직 | () 가정주부 |

■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 () 부모님 () 조부모 () 친척 () 친구와 동거 () 혼자 생활
 () 기타 (구체적으로:)

■ 가정의 총 월수입 ()

1. 100만 원 미만 2. 100-200만 원 3. 200-300만 원 4. 300-400만 원
 5. 400만 원 이상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상담기관 설문지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은둔형 외톨이, NEET,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 및 치료현황 조사

<본 연구에서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의 정의>

A.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 2, 4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됨)

1. 사회적인 접촉 없이 집안에 머물러 있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 활동을 하는 경우는 사회적 접촉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취학 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고 있지 않음
3. 친구는 1명 이하임
4.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고 지냄
 책, 만화, 비디오, TV, 인터넷, 오락, 잠 등으로 시간을 보냄
 연구 및 구상, 창작활동, 인터넷 사업 등 의미있고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
5.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있음

B. 중등도 이상의 정신지체(IQ55-50)가 있을 경우 제외함

작성자의 소속기관: _____ 이름: _____

1. 귀 기관에서 과거 1년 동안 당신이 담당한 상담 및 치료 사례는 총 몇 명입니까?
남자 _____명 / 여자 _____명
2. 앞에서 제시한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 별도로 마련된 질문지에 각 사례별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혀 상담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
4.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전문 기관의 확충 (⇒ 다음 항목에 구체적으로 표시) (중복 선택 가능)
 전문병원
 전문상담기관
 기숙 치료교육센터
 치료 후 연결될 수 있는 재활기관
 직업훈련 기관
 취업 장소의 확보
 상담자(의사)를 대상으로 사회 회피적 부적응 청소년의 상담(치료)기법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사회 회피적 부적응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5.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나 재활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국가적 지원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
 구체화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청소년의 가족(부모/형제)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을 위한 취업훈련 및 진로교육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사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직접 기입하거나 적절한 항목을 골라 체크해 주십시오.

1. 내담자(환자)의 개인자료 성별: (남·여) 생년월일: ____년 ____월 ____일
2. 상담 경로
 - () 본인 스스로 상담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서
 - () 가족의 권유에 의해
 - ()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됨
 -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 첫 회 상담시의 주호소 문제
 - ()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 활동을 하는 경우는 사회적 접촉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취학·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고 있지 않음
 - ()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하고 지냄
(책, 만화, 비디오, TV, 인터넷, 오락, 잠 등으로 시간을 보냄)
(연구 및 구상, 창작활동, 인터넷 사업 등 의미있고 목표지향적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외)
 -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첫 회 상담의 방법
 - () 직접 방문해서 상담
 - () 전화상담
 - () 인터넷 상담
 -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5. 첫 상담시 내담자의 활동 범위
 - () 자기 방안에서만 머무름
 - ()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나, 집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음
 - ()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외출함 (예: 만화책이나 비디오 빌리기 위해, 먹을 것을 사러)
 - () 외출은 하지만, 친구와 만남을 가지지 않고 활동이나 학업 등에는 참여하지 않음
 - () 친구와의 만남을 가지거나 외부활동이나 학업에 참여함
6. 내담자가 학교나 일과 같은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만 지내려고 했던 이유
 - () 신체나 용모와 관련된 열등감 때문
 - () 학업능력이나 성적에 대한 열등감 때문
 - () 교우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 () 학교생활이 부담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서

- 선생님이 무섭거나 싫어서
- 급우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이 싫어서
- 급우들의 괴롭힘이나 폭력이 싫어서
-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질병 등)
- 원래 비사교적이고 내향적이어서
-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해서
-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 내담자의 부가적인 문제행동

- 부모에 대한 폭력행동
- 형제자매에 대한 폭력행동
- 가정 내의 기물 파손 (예: 물건 던지기, 벽치기)
- 가족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 사용 (예: 욕설, 저주, 소리지르기)
- 자해
- 자살 시도
- 강박행동
- 섭식의 문제
- 낮과 밤이 뒤바뀜
-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
- 기타 (구체적으로 모두: _____)

8. 내담자의 부등교 경험

- 중학교 이전 (___ 회)
- 고등학교 (___ 회)
- 대학교 (___ 회)

9. 내담자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 없음
- 있음 → 있다면 총 횟수 ()회, 총 일한 기간 ()개월

10. 하루에 내담자가 컴퓨터를 하는 시간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 등을 위해)

하루 평균 ()시간

11. 내담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이 있는 경우,

- 폭력을 건디지 못하고 피해 나와 있는 가족이 있다.
- 폭력이 있어도 함께 살고 있다.

12. 내담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피해 나온 사람
 가족원 모두
 부
 모
 형제자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3. 내담자의 정신의학적 진단 및 과거 병력
 진단 없음 진단 있음 (구체적으로 모두: _____)
14. 제공된 상담 및 치료의 형태
 기관에 방문하여 개별 상담
 기관에 방문하여 집단 상담
 집단적 교육이나 강의
 가정방문
 전화상담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5.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한 대상
 본인
 부모
 본인과 부모 모두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6. 대상자의 현재 상담 및 치료 상태
 현재 상담 및 치료 진행 중
 상담 및 치료가 중단된 상태
 상담 및 치료의 종결
17. 위의 (16)항목에서 '상담 및 치료의 종결'에 체크한 경우, 다음 중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가?
 크게 개선이 없음
 계속 은둔상태에 있으나 심리적 불편감이나 불안은 감소
 가정관계가 개선됨
 은둔상태가 개선됨
 교육기관에의 취학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취업
 정규직에 취업
 그 외 친구 만나기나 사회적 활동에 참가

18. 내담자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

- 민주적, 권위있는 부모 (통제와 애정을 모두 제공)
- 통제적이고 권위를 내세움
- 방치 (애정이나 통제를 하지 않음)
- 허용적 (통제없이 애정만 제공)
- 과잉보호
- 지나친 간섭
- 학대적

19. 내담자의 가정 내 문제

- 없다 부모님의 말다툼과 불화
-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부모님의 별거나 이혼
- 부모님의 무관심과 대화 부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부모님의 과도한 체벌과 욕설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0. MMPI를 실시하였다면 각 척도의 T점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요인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T점수													

8. 외출 : 혼자서 가능하다 가족과 외출이 가능하다. 보통 ()시 정도에 외출한다
 기타 ()
 이동수단 : 지하철 버스 자전거 도보 자가용 가족이 운전해 준다
9. 쇼핑 : 자기 것만 산다 취미에 관계된 것들을 산다 식재료를 산다
 가족들의 생활용품을 산다 인터넷 주문을 한다 가족에게 살 것을 부탁한다
 쇼핑하지 않는다 기타 ()
10. 취미 : TV 시청 컴퓨터 게임 음악감상 독서 기타 ()
 교류하는 사람 : 가족 친척 학교친구 온라인 친구 이성친구
 아무도 없음 기타 ()
11. 함구(절대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걸 수 없는 상태) :
 함구 상태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집 밖에 나가면 함구한다 가정 내에서 함구한다
 기타 ()
12. 문제행동 : 폭력 (대상 : 방식 :)
 기물파손 (대상 : 방식 :)
 폭언 (대상 : 내용 :)
 낭비 (비용 :) 강박행동 (내용 :)
 자해 (부위 :) 자살시도 [횟수 : ()년 ()월경]
 술버릇 (내용 :) 기타 ()
 문제행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13. 일상생활 기능 : 상 차리는 것을 돕는다 식사 후 자기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놓는다
 요리를 돕는다 쓰레기를 버린다 세탁기를 돌린다 빨래를 갠다
 우편물이나 택배를 가져온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
 다른 가족의 방이나 거실을 치운다 애완동물을 돌본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기타 ()
14. 거주 : 자취 경험이 있다 (이유 : 기간 :)
 친구와 살았던 경험이 있다 (이유 : 기간 :)
 기숙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이유 : 기간 :)
 친척집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 (이유 : 기간 :)
 집 외 다른 곳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기타 ()

15. 생활비나 용돈 : 매달 용돈을 준다 필요할 때 준다 주지 않는다
 생활비나 용돈을 직접 얼굴을 보고 준다. 월 ()원 정도
 생활비나 용돈을 계좌이체한다. 월 ()원 정도
 기타 (방식:)

♣ 가족이 보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1. 건강상태 : 양호하다 좋지 않다. 병원에 다닌다 (병원명: 진료과:)
 용약: 통원시간대:()시~()시 (진료시간:)
 좋지 않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유:)
 장애등급 여부: 있다 (내용:) 없다
2. 이전 심리상담 경험: 있다 (내용:) 없다
3. 보험, 국민연금 가입상황 :
 대상자에게 실비보험이 있다 대상자에게 실비보험이 없다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가족이 의료보험비를 부담하고 있다 대상자는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고 있다
 모른다 기타 ()
4. 대상자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 같은지 써 주세요 :
5. 가족의 희망을 써 주세요 :
6. 대상자의 희망이 무엇인 것 같은지 써 주세요 :

2. 본인용

작성날짜 : 년 월 일

- 담당 질문자 이름 (상담자 이름) :
- 상담자 연령 : ()세
- 내담자 이름 :
- 내담자 생년월일 : 연령 ()세
- 내담자 주소 (동거 시 생략) :

♣ 가족 사항(신청자 포함)을 적어 주세요.

이름	가족관계	연령	직업	동거 여부 (○ 표시)
				동거 /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 별거
				동거 / 별거

해당하는 □에 √ 표시해 주시고 () 안에 자유롭게 기입해 주세요.

♣ 가족과 대화 유무, 친밀함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의 관계가 □ 친밀하다 □ 보통이다 □ 친밀하지 않다
2. 형제자매와 관계가 □ 친밀하다 □ 보통이다 □ 친밀하지 않다
3. 가족과 대화유무 □ 잘 이야기한다 □ 가끔 대화한다 □ 꼬덕이는 정도이다 □ 거의 대화 없다
□ 전혀 대화 없다 (아무 말 없음)

♣ 당신의 유아기, 초·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중, 취업을 준비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사건,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적어 주세요.

1. 유아기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5. 대학, 전문학교 등 :
6. 취업 (아르바이트 포함)

♣ **당신의 경험에 대해 적어 주세요.**

1. 당신이 은둔하게 된 계기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언제쯤 : ()세 ~ ()세 정도 기간 : ()년 ()개월 정도

2. 기타사건 :

♣ **당신이 선호하는 연락방법 :**

전화통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계정 (종류:) 이메일

아무거나 상관없다

등교거부 경험 : 없다 있다 (현재/과거) 기억나지 않음

병원에 다닌 경험 : 없다 있다 (현재/과거) 기간 ()년 ()월 ~ ()년 ()월

기억나지 않음

건강상태 : 좋다 좋지 않다/병원에 다닌다 좋지 않지만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

진료병원 : 없다 있다 (병원명: 복용기간:)

복용약 : 있다 (복용약명: 복용기간:) 없다

이전 상담 경험 : 있다 (센터명: 기간:) 없다

장애여부 : 없다 있다 (등급:)

♣ **당신의 일상생활과 생활모습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생활 패턴은 어떻습니까? :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

()년 ()월경부터 기상시간 ()시 ~ ()시

가끔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일 정도

밤낮이 바뀌지 않았다

2. 옷을 잘 갈아입고 생활합니까? :

- 거의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 계절이 바뀌면 갈아입는다 옷에 관심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는다 기타 ()

3.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

- 혼자서 차려 먹는다 혼자서 배달시켜 먹는다 식탁에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가족과 같이 식사한다 식사를 차려서 방 앞에 두거나 방에 넣어 준다
 기타 ()

4. 외출할 수 있나요? :

- 혼자서 가능하다 가족과 가능하다
 보통 ()시 정도에 외출한다
 기타 ()
 이동수단: 지하철 버스 자전거 도보 자가용 가족이 운전해 준다

5. 쇼핑하러 갈 수 있나요? :

- 내 것만 산다 내 취미에 관계된 것들을 산다 식재료를 산다 가족의 생활용품을 산다
 인터넷 주문을 한다 가족에게 살 것을 부탁한다 쇼핑하지 않는다
 기타 ()

6.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 TV 시청 컴퓨터 게임 음악감상 독서

- 기타 ()
 요즘 당신이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

7. 교류하는 사람이 있나요? :

- 가족 친척 학교친구 온라인 친구 이성친구 아무도 없음
 기타 [()명 정도]

8. 당신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 곤란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쇼핑중독 강박적 행동 폭력 기물파손 폭언

9.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상 차리는 것을 돕는다 식사 후 밥그릇을 싱크대에 내놓는다 요리를 돕는다
 쓰레기를 버린다 세탁기를 돌린다 빨래를 갠다 우편물이나 택배를 가져온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 다른 가족의 방이나 거실을 치운다 애완동물을 돌본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기타 ()

